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매거진

월드뷰

WORLDVIEW

03

MARCH · 2017

ISSN 2234-3865

책임지는 시민사회 세상사는 그리스도인

COVER STORY

우리는 그의 흔적(Markers)입니다
_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 김준영

COLUMN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한국의 시민, 시민사회, 시민윤리와 교회
사랑으로 진리를 외친다
[열린읽기]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으로
[회원기고] 기독교세계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정체성, 타자, 구조-



SAMSUNG

세상 어디서든 쓸 수 있어야 진짜 노트북

스마트폰 배터리팩 충전
지문인식 기능으로
어디서든 더 자유롭게

인텔 인사이드®. 더 뛰어난 성능 아웃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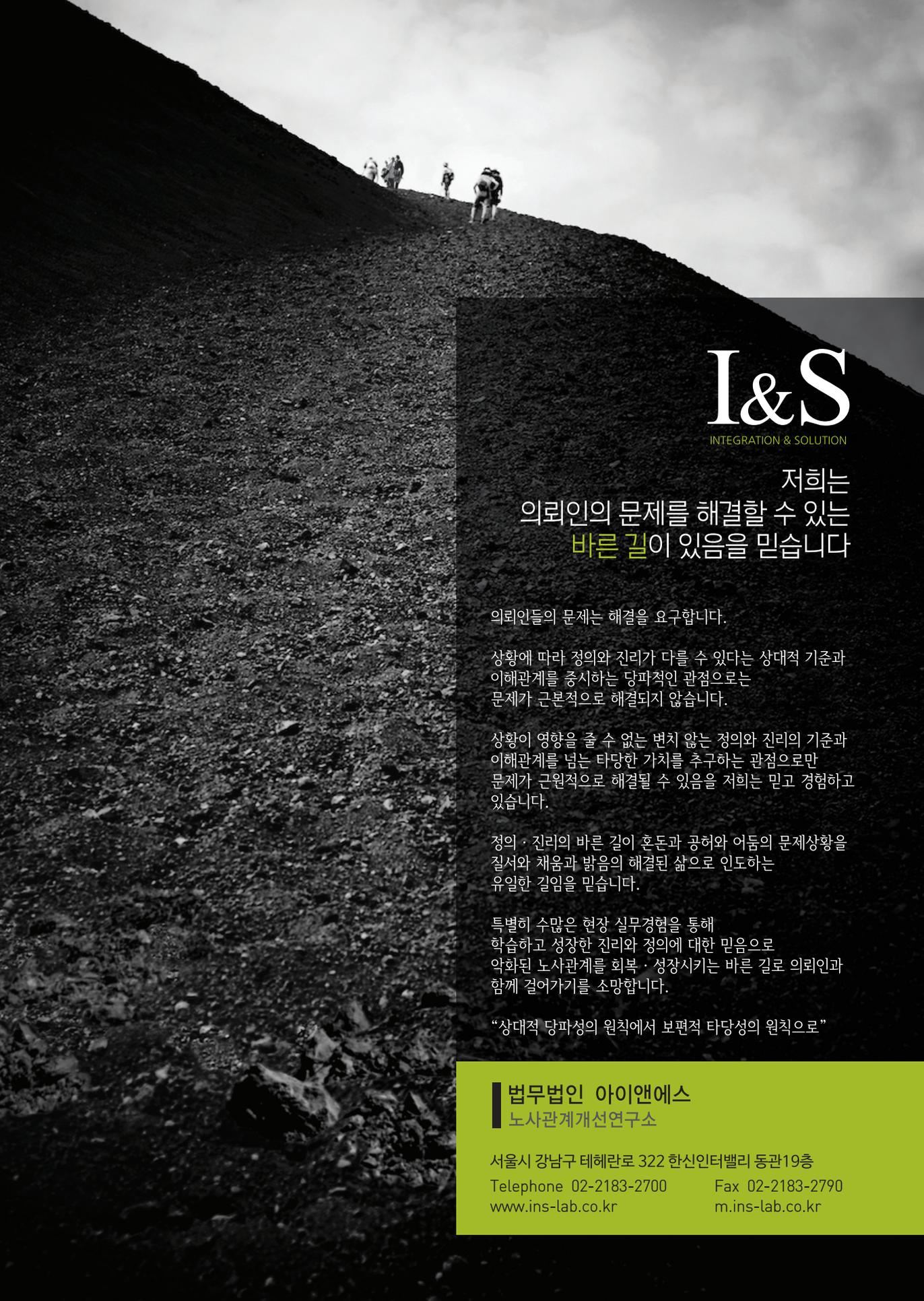
900X3NI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탑재

All day, All night, Always

삼성 노트북 9 Always



*제품의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배터리팩은 별매입니다. *인텔, 인텔 로고, 인텔 인사이드, 인텔 코어 및 코어 인사이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해당 모델은 오프라인 매장 및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sung.com/sec)
*정격이 10W5 V2A 이상이고 USB-C™ 또는 USB BC 1.2를 지원하는 외장 전원장치(별매)와 호환됩니다.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동관19층

Telephone 02-2183-2700

Fax 02-2183-2790

www.ins-lab.co.kr

m.ins-la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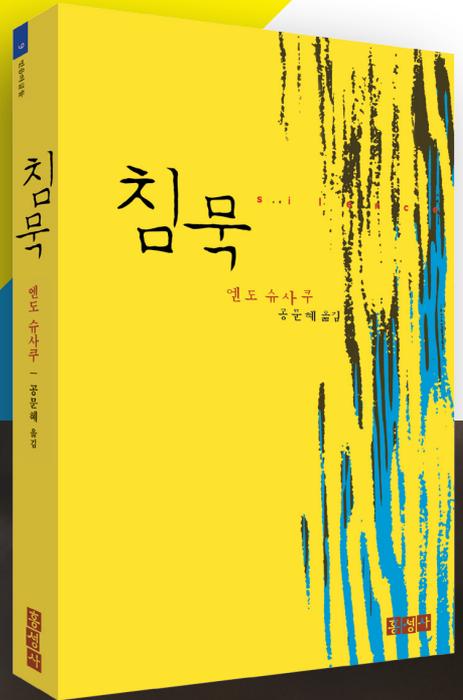
마틴 스콜세지 감독 작품
영화 <사일런스> 원작

노벨문학상 후보이던 문학의 거장
엔도 슈사쿠의 20세기 최고의 소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문제를
인물들의 내면 묘사를 통해
조용하고도 뜨겁게 그려낸 수작(秀作)!

엔도 슈사쿠 지음 | 공문혜 옮김
A5변형 | 믿음의글들 9
312면 | 보급판 10,000원
양장 13,000원



사일런스

S I L E N C E



기독교 고전교육기관



SICA

Edu Letter from SICA #1

부담의 존재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번째 국미자 세상입니다.
 부담의 많음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번째 헌법이자 상식입니다.
 교원은 사실상 부모에게서 시작되어 부모에게서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말과 행위로 자녀들을 가르쳤다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모든걸 배웠다 말합니다.
 엄마가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
 학생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시험지에 답하지만,
 돈을 좇아 살아갑니다.

SICA는 부모와 한목소리가 되고, 한 뉘 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교실에서 아무리 해설을 경외하라 가르쳐도
 부모가 아니라 한시도 아이들은 호관스러워합니다.
 교실에서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해도,
 그럴 때 그냥 묻지 마라고 아버지가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냥 책속의 괴짜같은 주인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할 뿐입니다.

SICA는 우리 아이들이 그저 성공한 아이들로 자기들만 만족하지 않듯이
 우리 부모님들께라도 그저 성공한 어른으로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SICA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예비자를 자라도록 도우며 기도하듯이
 SICA 스스로도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예비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Trivium)으로 가르칩니다.
- SICA는 이중언어(영어+국어)로 교육하며, 고전어(라틴어)를 가르칩니다.

입학설명회
안 내

유·초·중등 과정(유치원-7학년) / 고등 과정(8-9학년)

일시: 2017년 3월 15일(수) 오후 4시 • 장소: SICA(서울 서초구 양재동 363)

입학상담 02.557.7710 | www.sicakorea.org

Contents

MARCH · 2017



COVER STORY

커버스토리

우리는 그의 흔적(markers)입니다 | 김준영 07

SPECIAL

대표주간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 손봉호 16

기획칼럼

한국의 시민, 시민사회, 시민윤리와 교회 | 백종국 19

사랑으로 진리를 외친다 | 신동식 24

COLUMN

열린읽기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으로 | 이춘성 28

세상보기

버려진다는 것의 의미 | 이정일 40

묻고 답하기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새생명 | 김현수 44

CULTURE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다 58

손봉호의 유머 모음

새 이름 | 손봉호 34



영원한 마커스 김준영

WORLD VIEW

2017년 3월호 | WORLDVIEW | 통권 201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ORLD VIEW



CONTENTS

그땐 그랬지	
젊음	14
루터의 도시를 가다 #13	
비텐베르크에서의 결혼 1 추태화	32
BE+LIVE+R	
세계관 운동, 길을 묻다 - 세 번째 양희승, 이강일	36
기고	
기독교 세계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최종원	49
최근 한국 영화 속 '지옥도'의 풍경 박명호	54
라오코리안대학교 개교를 바라보며 이종범	56

BOOK REVIEW

새책읽기	
하나님나라를 욕망하라 정문선	60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김봉례	61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 유선덕	62
사랑학교 장윤석	63

NEWS

재정보고, 후원명단	64
사무국 소식	68
3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68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사진 신효영 | 일러스트레이터 김미수 | 디자인 · 인쇄 디자인집 | 제작 (주) 세상바로보기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한강르네상스빌 A동)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이메일 m.worldview.or.kr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생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실무진	나동훈	독서진흥간행물 <Thanks Book> 발간인, 디자인집 아트디렉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졸업, 미술학 박사
	신호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장,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중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나동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익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만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명지대 교수),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공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우리는 그의 흔적(markers)입니다.

인터뷰어 신국원 (월드뷰 편집위원, 총신대 교수)

김준영.

“나의 미래 공작소” 아주 생소한 이름으로,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 나의미래공작소 디렉터, 계산제일 교회 문화사역자 및 청년부 담당 사역자이자 우리에게 친숙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날 향한 계획’, ‘주님의 사랑’, ‘주를 위한 이 곳에’, ‘그가 오신 이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나의 노래’, ‘동행’, ‘하루’ 등 숱한 찬양을 발표한 작사가, 문화사역의 다양한 지평을 열어가는 김준영 디렉터를 월드뷰 편집위원인 신국원 교수가 만났다.

신국원 (이하 신) 오랜만입니다. 마커스, 나의 미래공작소(이하 나미공), 문화캠프 핼(P.Y.M), 예학당 등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러 애쓰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이렇게 월드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김준영 디렉터의 사역을 월드뷰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신앙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김준영 (이하 김) 저는 삼대째 양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고, 외할머니의 동생인 외삼촌 할아버지가 저의 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못된 신앙’, ‘못해 신앙’이었죠.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입시 실패 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96년도 제대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역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신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사역이 마커스 미니스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온 발자취와 함께 마커스 설립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김 마커스 전에 98년도에 노래하는 단기선교팀 컨티넨탈싱어즈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지부의 컨티넨탈싱어즈가 있는데 소리엘의 장혁재 씨, 김명식 씨, 이유정 목사님 등이 이곳 출신 사역자가 많죠. 이후 99년도에 컨티넨탈에서 만난 천관웅 목사님과 디사이폴스를 창단했습니다. 제자교회에서 예배팀을 새로 시작하는데 같이하자 하셔서 기획 및 실무를 담당하는 부리더로 합류했습니다. 천관웅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인도와 설교를 하면 저는 팀 안에서 기획, 실무 등을 했죠. 2001년까지 이 사역을 하다가, 당시 두란노서원에서 시작한 음반 사업의 책임자 제의가 있어 그곳을 섬겼습니



팀이 깨져서 사라진 해체가 아닌,
마커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겁니다.



다. 이후 마커스 사명에 대한 비전으로 2003년 4월 26일 창단멤버 7명과 함께 마커스 설립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4월, 하나님 뜻에 따라 공식적으로 흩어졌고, 제가 2014년 6월에 가장 먼저 마커스 사역을 사임을 했습니다.

신 흩어졌다, 발전적 해체라고도 하던데 어떤 의미 인가요.

김 우선 해체가 아니라 정확히 흩어진 건데, 분립이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립은 모체가 있고 분립을 하는데 마커스는 모체 없이 다 분립했습니다. 각자가 마커스 안에서 해왔던 사역 중 자신의 비전에 맞는 사역들로 분립했습니다. 마커스의 사역을 크고 작은 13가지로 나누고, 각자가 자신의 비전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중 저는 '나의미래공작소'로 분립을 한 거고요. 여전히 목요일예배 사역을 자신들의 역할로 삼은 마커스 멤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흩어졌다'라고 표현하니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팀이 깨져서 사라진 해체가 아닌, 마커스(그리스도의 흔적)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영역과 사역으로 '흩어졌다'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확산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마커스 멤버들과 2010년부터 나누고 준비하기도 했고,

나의미래공작소 <https://www.namigong.com/>

나의미래공작소는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인 김준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크리스천 문화, 예술 훈련 단체이며, 이 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돕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의미래공작소는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실제적인 배움과 도움을 추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이들을 섬깁니다.

2011년에는 3개월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신 이 부분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헤어짐이 아름다운 예가 많지 않거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참 훌륭하다 봅니다.

신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마커스 사역 중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지금은 크리스천 예술가들을 훈련하는 '예학당'이 눈길이 갑니다.

김 마커스를 시작하며, 찬양사역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신학교나 신대원 등 여러 훈련과 과정이 있는데, 찬양사역에는 예수전도단의 DTS 정도가 다였죠. 그래서 마커스 멤버들을 위한 훈련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반적인 제자훈련 외에 예술에 관한, 음악을 훈련하는 곳을 찾다가 결국에는 제가 읽던 책들을 토대로 단 두 강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돌로스 훈련학교 사역자 반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강의를 추가하고 그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크리스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원리와 관점에 대해 가르쳐야 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음악, 영화, 미술 등 각 영역의 전공자들과 1년 이상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토론하여 강의안의 큰 줄기를 잡았고, 이를 마커스 멤버들을 시작으로 지인들을 대상으로 3년 정도 비공개로 강의를 실시했고요, 이후 정식으로 강좌로 자릴 잡은 것이 지금의 '예학당'입니다.

신 '예학당'이 벌써 12기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사역을 지속할 수 있던 비결은 뭘니까?



목회자는 신학교나 신대원 등
훈련 과정이 있지만,
왜 크리스천 예술가에겐
그런 과정이 없을까?
이것이 예학당의 시작입니다.



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일단 커리큘럼이 1년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목마른 예술 전공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전공의 필드에서도 굉장히 상충되고 부딪힌 청년들이 많았죠.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원론을 말하니까 예술을 직접 행하는 예술가에게 실제적이지 못했던 거죠. 자신이 속한 예술의 필드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치닫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지점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창작활동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것인지 실제적 고민 사이 조언을 얻기 어려운 예술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예학당'을 알게 되고 모종의 기대감으로 온 청년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나눌 대상이 없으니 기본적으로 상당히 외로웠고 일단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를

예학당 <http://www.cartschool.kr/>

예학당 : 예학당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제자훈련 학교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무기력해진 크리스천들이 창조성을 회복을 꿈꿉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인 또는 예술사역자들과 예술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의 문화적 흐름 가운데 바로 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제자훈련학교로 총 40주차(매주 월요일, 3시간)로 진행됩니다. 현재 예학당은 1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예학당 13기 모집 :::

+ 모집기간 : 2017.04.02(일) 까지

+ 훈련기간 : 2017.04.10~2018.02.26 (총 40주)

+ 훈련일시 : 매주 월요일 PM 7:00-10:00 (주 1회)

+ 장소 : 나의미래공작소(합정역(2호선, 6호선) 도보 7분 거리)

+ 문의 : artschool153@naver.com / 070-8682-2657 (문예은 팀장)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4월에 13기가 시작됩니다.

신 그러면 초창기 마커스의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모임인 'ART AND SOUL NETWORK'과 현재의 '예학당'은 같은 사역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김 'ART AND SOUL NETWORK'은 조금은 더 확장된 사역으로 말 그대로 허브 역할의 연합사역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네트워크로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임에서 500여명의 예술가가 모였고 BWC(강연-예배-콘서트, Briefing Worship Concert)를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예술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창조하신 뜻을 회복하는 온전한 예술 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고 공부하고, 연대하는 비전을 선포하며 당시 IVP에서 출간한 『예술과 영혼(Art and Soul)』이 모티브가 되어 'ART AND SOUL NETWORK'라 명명했죠. 그 자리에서 200여명이 협력하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스튜디오도 하고 프로젝트 등도 했습니다. 그 모임이 지금의 예학당을 이끌어 가는 중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신 중심 인력이 있으니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모이기 쉬워도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 현재 예학당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는 유명무실해져서 최근에 다시 '창작 마을 함께'라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술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재정을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김준영 디렉터가 생각하는 문화사역은 어떤 것인가요?



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문화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강의를 의뢰합니다. 막상 강의를 들으면 예상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화가 결국 삶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를 바꾸려면 삶이, 삶을 바꾸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만 합니다. 한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사역입니다. 한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이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 그리고 본이 되는 선배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문화사역은 세계관을 바로 잡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신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사역을 생각하고 꿈꿨지만, 관심과 패기만으로는 쉽지 않죠. 문화사역이란 말도 무성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이 애매하고 막연할 수 있어요. 뒤따르는 청년사역자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방향을 제시한다면요.

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제가 문화사역을 해야겠다고 맘을 먹고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사역하면 콘텐츠나 프로그램 등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봐요. 한 부분이지만 문화사역자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문화는 사회의 한 현상일수도 있지만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란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온전한 문화사역을 하긴 어렵다 봅니다.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전체 유기적 관계 속에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문화 사역자, 기획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 혹시 앞서 언급한 사역들 이외에 문화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김 문화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문화사역의 시작이 교육이라 생각



하기에 좋은 사역자, 후배들을 양성해내는 학교와 아카데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학당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요. 언젠가는 올바른 기독교 관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예술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사명감 안에서 준비하고 창작활동하는 그런 진정한 예술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예술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과 전문적인 제언에 있어 세계관동역회와의 협력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신 세상에서 예수 문화 만들기, 문화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미래공작소>에는 예학당, 만나다, 배우다 등도 있지만, 여름에는 청년을 대상

으로 하는 문화캠프 P.Y.M도 있습니다.

김 캠프라는 것이 사람들을 어떤 시공간으로 초청하여 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나미공과 P.Y.M 캠프의 강사들을 저희는 가이드(guider)라 부릅니다.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청년들에게 조언과 스스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40대 중후반이고, 이들은 또 5~60대의 멘토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문화캠프 P.Y.M을 통해 청년들은 이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이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일단 캠프를 통해 압축되고 강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나미공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적인 삶에서 크리스천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도움과 여러 도전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 작사가로 유명합니다. 김준영 디렉터가 직접 쓴 가사 속에는 일상 속 신앙 고백이라는 하나의 주된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르신 곳에서’가 있고, 번역한 ‘온전케 되리’도 있습니다.

김 ‘온전케 되리’는 두란노에서 있을 때 번역했었고요. 사실 제가 가사를 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획자고 실무자로 이성적인 판단을 요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커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마인드를 풀어내고자 자연스럽게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 2009년 ‘부르신 곳에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해 여름에 수련회의 주제가 ‘부르신 곳에서’가 절반 정도였다 할 정도로요. 과거 찬양과 달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등은 그 제목이 딱 떨어지지 않아 기존과 다르다는 신선함을 주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백수업』 나만의 시편 만들기 |

저자 김준영 | 와웬퍼블



청년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바람을 일으킨 마커스의 설립자 김준영 대표는 노랫말 하나하나에 담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아픔, 좌절, 외로움 등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고, 그 시간들은 아름

다운 노랫말로 고백되어 지금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청한다. 이 책은 ‘나의 고백’이라는 여백 페이지를 따라 마련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심어린 고백들을 바탕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오리지널 찬양을 들으며, 또한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자신의 고백을 글로, 그림으로, 그 밖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며, 그 고백들은 훗날 삶의 여정에서 주춧돌이 될 때 따뜻한 위로를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시 시대와 문화의 트렌드가 반영되었고, 가사가 성경적 내러티브 관점에서 실제 고백의 언어로 쓰인 가사라 많은 공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닌 전 곡의 내러티브에서 주제를 찾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예상치 못한 비난도 받았었습니다. 개인의 고백적인 찬양 가사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개인 중심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사가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더 강조합니다만, 여전히 신학적 논란과 해석의 차이 면의 비판은 있습니다.

신 그래도 비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 그럼요. 처음에는 반응을 안했었는데, 해석에 따라 생기는 오해의 부분도 제 책임이겠다 싶어 블로그 등에 가사에 대한 생각과 배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백수업』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쓴 가사에 대한 배경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목상 내용들을 담아 출간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은혜와 고백이 있어요. 이를 자신만의 고백들을 글과 다양한 모습으로 쓰도록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 사진으로, 캘리그래피나 일러스트 등으로 하나님 앞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죠.

신 문화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문화 변혁에 대해 고민했던 한 사람으로 이 사역이 과거 제가 문제의식을 갖았던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더라면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진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김준영 형제의 사역이 월드뷰 독자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며칠 전 정기총회에서 지금은 중년이 된 한 동역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바로보기.

세상을 바로 보도록 노력해야 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이런 도전도 하셨습니다.

이제 당위성, 필요성은 그만 이야기 하고 '하라!'

그리고 신년사의 메시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지금,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살린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제 자신을 넘어 한국문화와 사회, 그리고 교회를 위한 학문의 사명감을 지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WORLDVIEW

SPECIAL

“국가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한다면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는 무엇일까요?

어느 노학자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우리의 인생과 사회에 책임지는 것,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기독교적 정당을 만들거나
정치의 한 목적을 선동하여
군집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시민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윤리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손봉호 (대표주간)



최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퇴진을 반대하는 시위가 주말마다 벌어졌다. 다행하게도 과거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뤄졌다. 시위경험이 워낙 많았으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한다. 바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력의 부패에 항의하는 문화 때문에 어떤 정치학자들은 한국이 민주주의에서 일본보다 앞섰다고 주장한다 한다. 일본은 아직도 시민사회라 할 수 없는데 비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시민사회가 되어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란 용어는 이미 주전 1세기 로마 철학자 키케로(Cicero)의 글에도 나타나고(societas civilis), 17세기 영국 철학자 로크(John Locke)의 책에도(civil society) 언급되어 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G. W. F. Hegel)은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

를 역사 발전의 한 단계로서 유무상통의 가족중심 공동생활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단계의 공동체 형태라 했다. 그가 기대한 이상적인 국가는 출현하지 않아 그의 역사철학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를 가족이나 국가와는 구별되는 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이해와 일치한다.

현대 시민사회는 게르너(E. Gellner)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를 제외한 사회의 모든 다른 부분”으로 이해되고, 특히 그것이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한국처럼 수많은 시민운동단체(NGO)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공적인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사회를 뜻한다. 일본을 아직도 시민사회라 하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반면 국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법과 권력은 선거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강제적 집행이 정당성을 갖고, 공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수행에 상응하는 공적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고, 비록 공익을 위해서 시간, 돈, 노력을 제공하지만 자발적인 봉사이므로 공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시민단체의 유일한 권위와 영향력은 시민들 다수의 호응과 신임이다. 시민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도 원칙적으로는 동조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회비나 기부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들도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그런 공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복지단체가 정부의 공적 복지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정부가 제공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일부 비용은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되고 공무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 복지단체 종사자들이 더 헌신적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시민단체가 많은 사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성숙하고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부, 정치인, 기업, 직능단체 등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과 단체들의 권한 남용이다. 특히 국가 기관과 정치인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삼권분립이 이뤄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큰 비리에 휘말리게 된 것을 보면 권력집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 수 있다. 거기다가 현대 사회의 정부와 기업은 과거에 비해 그 조직과 운영이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 개개인이 그들의 권한 오남용을 쉽게 알

어떤 학자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국가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부패할 가능성이 약하고
권력기관의 부패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와 견제하는 것이
시민사회다.

수가 없고 그것을 방지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체를 만들어 시민다수의 지지를 배경으로 감시와 견제활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국가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물론 언론과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처벌하지만, 그들도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패할 수 있다. 부패할 권한이 없는 시민들은 부패할 가능성이 약한데다 권력기관의 부패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므로 그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형식적 위임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아무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공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시민들의 지지와 신임으로부터 나온다. 시민들의 지지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경고는 시민단체에도 적용된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운동은 순수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

와 신임이 없으면 스스로 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자체 유지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는 우선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발견하고 감시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충분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철저히 투명하며 공정하고 순수해야 한다. 부정을 감시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보다 더 강한 자체의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때 한국 시민단체들은 공명선거, 환경보호,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언론이나 정당들이 이룩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무력해졌다. 그것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순수성과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John Dalberg-Acton)의 경고는 시민단체에도 적용되고 실증되었다. 공익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이룩하여 영향력이 커지자 그 성공이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공익을 위한 활동보다는 자체의 존립과 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가 상당수가 정치계로 진출하게 되어 시민운동은 정치계 입문을 위한 디딤돌이란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보편적인 신임을 잃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민운동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실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복음주의 기독교 NGO들은 큰 도덕적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나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뚜렷한 정체성을 과시하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단체의 소임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좋은교사〉는 기독교 단체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드러내며 잘 활동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

※ 본 칼럼은 2월 25일자 국민일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한국의 시민, 시민사회, 시민윤리와 교회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민사회로의 초대

2016년은 한국 사회의 시민윤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적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 김영란법의 제정을 통해 개인 생활에서 검소와 절제를 삶의 준칙으로 삼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국가 생활에서 공의와 정직을 정착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공평과 정

직, 검소와 절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연인원 1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평화시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운동의 모범이었다. 강수택이 그의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에서 서술한 바처럼 “온전

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개방적인 시민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였던 세대, 계급, 지역, 이념, 성별 갈등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용해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시민윤리가 정립되려면 아직도 많은 논의와 갈등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극히 소수의 노인층을 중심으로 횡행하는 갖가지 루머와 주장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주장들조차도 보수-진보의 구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민적 견해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비합리적 궤변과 이데올로기적 자폐증상이며 결코 시민적 견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비합리성과 이데올로기적 자폐증상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신앙적 수사로 포장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한국 교회 일각에서 준동하는 반지성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소수의 세력들에 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민윤리의 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혼란의 정리 방안 중 하나로 시민, 시민사회, 시민윤리 등 주요 개념들을 피차에 동의하기 쉬운 수준에서 간단히 정리하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의 한국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바람직한 시민윤리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전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은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시민(市民)과 시민사회(市民社會)는 서구에서 수입한 개념이며 근대 이전의 동양에서는 볼 수 없었다. 과거에 사용되거나 새로 개발된 신민(臣民), 국민(國民), 민중(民衆), 대중(大衆), 공민(公民), 인민(人民) 등의 용어와 유사하지만 용례가

서로 다르다. 신민은 왕의 통치에 대한 복종의 차원에서, 국민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민중은 피지배자 전체라는 뜻에서, 대중은 엘리트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민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인민은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주로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의 핵심인 시민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국가구성에 참여할 권리 즉 시민권을 가진 정치적 주체를 의미했으며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노예나 외국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각 시대와 그 세계관에 따라 심한 이해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전통에 따르면 시민사회(societas civilis)는 시민권을 누리는 개인들 구성된 민주적 공동체를 의미하며 독재자가 다스리는 폭군정과 대치되는 개념이었다. 홉스, 로크, 루소, 칸트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시민사회는 자연 상태 이후에 형성된 사회계약의 공동체 즉 국가를 의미하고 있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분리하는 근대적 관점은 헤겔로부터 시작되었다. 헤겔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부르조아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공동체(bürgerliche Gesellschaft)이며 공동선을 달성하는 국가를 향해 변증법적으로 발달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었다. 헤겔의 개념을 계승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물질 토대이며 국가는 부르조아들의 지배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계승하는 그람시, 알튀세르, 보비오 등은 시민사회로부터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유럽공산주의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헤겔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를 공공성 추구의 결사체 네트워크로 이해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버마스, 왈저, 테일러 등은 시장 메카니즘에 종속된 개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민(公民)으로서의 전통적 시민 개념을 부활시켰

다. 공적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 공동의 이익에 관한 문제해결적 담론의 제도화를 이끌어가는 시민의 공동체가 바로 시민사회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으로 볼 때 사회체제를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코헨과 아라토의 견해가 가장 유용하다. 정치사회(국가)에서는 정부가, 경제사회(시장)에서는 기업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현실적인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은 각각의 영역과 조직에서 관료 혹은 국민으로, 경영자 혹은 노동자로, 지도자 혹은 시민으로 중첩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윤리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시민은 국가구성에 참여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회적 주체이다. 시민사회는 평등하고 공개적인 조직들을 통해 주체적이고 민주적으로 공공선을 정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시민단체는 주체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조직이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시민의 사회윤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신학에 대한 임성빈의 정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적인 삶에 기여하는 기독교시민의 윤리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은 이러한 윤리적 속성이며 교회는 교우들이 기독교시민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윤리를 동반한다.

이러한 시민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일당을 받고 시위에 참가하거나 보수를 받고 인터넷 댓글을 올린다면 그는 이미 시민이 아니다. 국가가 동원하는 관제데모꾼이며 댓글 알바로서 국가 권력에 오염된 권력의 하수인일 뿐이다. 어느 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과 회비가 아니라 정부나 기업

이 막후에서 제공하는 자금으로 운영된다면 이 단체는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나 기업이 활용하는 권력 도구에 불과하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혹은 어떤 기독교단체가 이러한 일에 참여하거나 동원된다면 그 사람이나 그 단체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발전

한국 사회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개념을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수입하였다. 첫째는 국가 그 자신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였고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서구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사회과학자들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한국 사회는 이미 법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들이 시민적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하게 행사한다면 체제의 민주화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입한 개념이 실제의 삶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4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서구적 의미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한국에서 구현되지 못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통치조직을 확대하였으며 한국인들을 근대적 시민이 아니라 봉건적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무진 노력하였다. 수 백 만 명의 구성원을 자랑하는 관변단체들이 정보기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군사독재정부의 봉건적 신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진행된 데에는 두 가지 핵심적 요인이 있다. 첫째는 이때에 이르러 박정희가 주도한 신중상주의 체제가 자체의 모순으로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화, 독점화, 국제화의 구조적 모순과 지역감정전략이라는 전술적 모순이다. 도시화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신중상

주요 기간별 한국 사회단체의 설립 상황

기간	관변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합계
구한말	1	14.3	6	85.7	0	0.0	7
일제치하	1	3.3	25	83.3	4	13.3	30
해방이후 박 정권까지	13	8.6	117	77.5	21	13.9	151
박정희 정권	128	21.1	373	61.3	107	17.6	608
전두환/노태우 정권	73	7.3	820	82.1	106	10.6	999
문민정부 이후	21	3.1	588	88.2	59	8.8	667
합계	237	9.6	1,929	78.4	297	12.1	2,462

출처 : 시민의신문사, 『한국민간단체총람』 1997

주의 체제를 지지하던 농촌인구가 감소되었다. 독점화를 추구하다보니 재벌이 성장하여 국가와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국제화의 진행으로 외부의 압력에 취약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에 기대어 여당의 지지표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 때문에 득표기반의 항구적인 취약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그토록 힘써 구축한 통제조직들도 점차 힘을 상실하고 있었다.

둘째는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중산층의 성장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붕괴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한국처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비교적 균등한 분배를 수반한 소득 성장은 중산층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광영의 설명에 따르면 중산층은 교육정도, 소득수준이 높으며 정치의식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대부분 자발적이고 느슨한 시민조직에 참여하지만 권력 자원을 사용할 준비도 되어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인권운동이나 참정권운동에 참여하지만 점차 세련된 조직 하에서 전국적 연대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주었다. 시민정보센터가 2012년에 편찬한 『한국시민사회연감』에 따르면 2000년에 7,600개 정도였던 시민단체의 수가 2009년에 25,886개로 팽창하였다. 북

지, 환경, 정치/경제, 청년/아동, 자원봉사, 여성, 도시/가정 등 관심 영역도 매우 넓어졌다. 일종의 시민단체 붐이 나타난 것인데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높다는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요기관 국민신뢰도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대를 통틀어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이 전후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가 된 데에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권력의 균형, 매개의 변증법과 협치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력의 균형을 통해 한국의 밝은 미래에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민주력기업 즉 재벌을 육성해왔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이제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서구의 사례처럼 복지국가가 나서야하겠지만 한국의 국가는 그러한 역할에 익숙하지 않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 체제의 공공성 증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제의 붕괴는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시민단체가 정부와 재벌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공공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해도 시민단체는 매개의 변증법으로 인한 자기모순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매개의 변증법이란 매개의 관계에서 매개자가

본질보다 선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기소멸의 현상을 의미한다. 공공선을 위한 매개자로 출발한 시민단체가 어느새 자신의 생존과 권력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조희연이 지적한 바처럼 시민단체의 쇠퇴를 초래하는 “과잉정치화”는 시민단체가 시민사회 영역을 벗어나 정치사회로 진입할 때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 초심을 돌이켜보는 제도적 노력을 수시로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스스로를 “자살지향적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시민적 자발성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는 스스로 조용히 문을 닫아야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사회 외부의 권력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 지도자 그룹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힘은 국가나 기업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공공적 분별력을 행사하는 데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적 신뢰가 존립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좋은 정치지도자를 배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되 자신은 국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시민적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는 이미 협치(governance)의 세계가 되고 있다. 관료기구 중심의 정부로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는 다양화하고 국제화되었다. 김의영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는 “개인들과 사적·공적 조직들이 그들의 공동사를 관리하는 여러 방식들의 합”으로서 협치를 당연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소사가 정부와 기업 간의 조정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다원적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협치의 시대이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전제는 시민단체들의 목표가 공공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선을 빙자하여 협치의 자격을 얻고서 막상 협상에 있어서는 특정한 개인 혹은 해당 단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조직은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경제단체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공적 신앙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생태계이다. 장신근의 정리에 따르면 가정은 가족들에게 책임성, 평등, 법질서의 존중과 같은 시민적 자질의 기초 덕목을 교육시키는 시민 학교이다. 또한 교회는 제자직과 시민직의 균형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언어와 신앙적 언어의 습득하며,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공적 신앙을 양육하는 장소이다. 시민단체들은 교회를 통해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얻고 동시에 교회가 필요한 사회선교의 훈련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결론

자발성과 공공성은 시민의 핵심 윤리임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핵심 윤리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시민윤리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첨예한 정치 과제를 만나면 순식간에 봉건적 신민의 윤리로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었다. 다행히 한국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한국 시민단체 육성의 보금자리이고 시민윤리의 제공자였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것의 실천이 그가 가장 원하시는 바이며 민주사회가 지녀야 할 시민윤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이다.



글 | 백종국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서울대학원 정치학과를 거쳐 미국의 UCLA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정치경제학을 전공하여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맥시코혁명사』 등의 저서 외에 수십 편의 논문이 있다. 21세기정치학회장, 희망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공동대표 등 학회와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김선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사랑으로 진리를 외친다

-프란시스 쉐퍼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생각하다-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 국가 권력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국가 권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특별히 촛불민심의 영향으로 새롭게 구성될 정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프란시스 쉐퍼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가르침에서 한 수 배우고자 한다.

시민불복종

국가가 정한 법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불복종하고 시정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불복종운동은 그 낚임스런 진보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외침에 함께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는 불복종 운동은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적인 모습으로까지 비쳐지곤 한다. 그래서 정치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안정”을 내세우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한국의 현대 역사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은 지속되어 오늘에서야 비로소 불복종운동은 시민운동으로 그 힘을 얻고 있다. 촛불 집회는 최근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이란?

시민불복종 운동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효능을 지닌 형태로서 기존 사회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따름으로써 공의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전략적인 비협조운동이라고 한다. 전략적인 비협조에 대한 정치적 이론은, 어떤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정당성이 인정되는 권력 혹은 권위”라고 부른다. (스티븐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전략적인 비협조 이론에 의하면, 권력이 자유의사에 의해 부여되었다면 또한 자유의사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16세기 수필가 보에띠는, 폭군이란 “당신이 그에게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제외한다면” 그도 그 사회의 여타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했다. 쉐퍼는 “만약 시민불복종과 같은 한계선이 없었다면 국가는 자율적이 되었을 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했다. (쉐퍼, 『기독교와 정부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

그러므로 시민 불복종운동은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전략적인 비협조운동인 시민 불복종운동의 매력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시민 불복종운동의 목적은 어떤 법이 집행되는 것을 막고, 그 법의 부당성을 대중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국가 권력

국가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양심에

따라 감당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국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쉐퍼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쉐퍼는 1981년에 복음주의 교회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은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독재정부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한 『기독교 선언』(Christian Manifesto)(1981)이었다.

이 책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한계선(Bottom Line)”이다. 쉐퍼가 말하는 한계선은 시민 불복종을 의미한다. 쉐퍼는 불법의 정부에 대하여 불복종 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가르침으로 보았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로 인하여 정부의 불합리한 법 집행에 대해서도 교회는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매우 잘못되었다. 국가의 권위는 자율적인 권위가 아니고 대리자로서 권위다. 그리고 이 권위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월권하여 독재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침묵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¹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교회처럼 국가가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날 때 국가에 불복종해 왔으며,

1. 로마 제국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굴에 던짐을 당했는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이유이나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시민의 저항이며, 시민의 반역이었다.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신앙행위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반역이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죄인이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곳마다 민중의 저항과 피흘리는 거역이 있었다.²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사무엘 리더포드는 그의 책 『왕과 법』에서 17세기 특유의 “왕의 천부인권” 즉, 왕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이라는 사상을 공격하였다. 그는 모든 인간은 왕이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위에 군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더포드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여 국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임으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국가행위는 불법이며 폭정이라고 주장한다. 리더포드의 관점은 분명하였다. 불법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의 정부를 용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시민불복종의 실제

국가의 불합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은 폭이 넓다. 단순히 항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무력 사용까지 허용한다. 쉐퍼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세 가지로 제한한다. 첫째는 그저 항거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³ 둘째로는 가능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피한다. 셋째로는 가능하다면 무력(Force)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쉐퍼는 존 낙스와 사무엘 리더포드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무력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쉐퍼가 생각하는 무력의 한 형태는 1차적으로 저항

의 모습으로서, 흔히 말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기능이다.⁴ 그러나 쉐퍼는 이에 더 나아가서 2차적인 무력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도피할 길이나 저항할 길이 막혀 버릴 때 자기 방어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쉐퍼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 저항의 한계선(Bottom Lin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투쟁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해결책만 사용하고 정치적인 면으로 투쟁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반면, 기독교적인 해결책을 쓰지 않고 정치나 법적으로만 해보려는 것도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릇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못 됩니다. 적합한 정도의 시민 저항의 한계선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국가가 그 권위를 팽창시켜 성경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 쉐퍼, 『기독교선언』

쉐퍼는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이상주의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직접 시위의 현장에 있었다. 단순히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갔다. 말만 하는 것은 결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기에 작지만 큰일을 감당하였다.

2.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선언」, 107. 쉐퍼는 특별히 106-113에서 종교개혁을 위하여 신앙적인 불복과 시민의 저항이 유럽 전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윌리엄 틴데일, 존 번연,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제네바와 무력에 의해 종교개혁의 꿈이 무너진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 등을 예로 들고 있다.

3.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선언(1982)」, 117. “즉 어떤 이가 정부 기관에 의하여 불공정히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는 자기 지역위원을 만나거나 그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의원은 관계기관에 직접 접촉해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말함.”

4.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선언(1982)」, 123. “쉐퍼는 이러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한 형태를 들기를 “낙대에 사용되는 세금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이 행하였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 안내기운동과 동일한 것이다.”

사랑으로 진리를 외친 선지자

인간의 모든 구조가 완벽해지리라고 믿고 있지 않다. 완벽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현실적이다. 성경은 이상주의나, 낭만주의 그리고 현대의 사실주의와는 다른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정직한 답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진리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서 인본주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고만 있다면 1년에 150만 명이 이상이 되는 태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우성을 피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현실의 문제에 행동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되면 저절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몽상에 불과하다. 타락된 세상에서는 단지 이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인식이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갖는 동시에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안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허공에 맴도는 소리밖에 안된다. 웨퍼는 인본주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기독교적인 대안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치유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회, 정치, 법, 문화, 환경의 문제에 참여하여 불의를 알리고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다. 그는 이렇게 외친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명령되어 있는 기독교적 대안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적절한 단계에서 정치적, 법적 수단으로서 시민 불복종의 한계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역시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웨퍼, 『기독교와 정부 그리고 시민불복종 운동』

나가는 말

우리는 웨퍼를 통하여 중요한 가치를 배워야 한다. 그 첫째는 선지자적 현실주의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이다. 이것이 있어야 공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성경을 현실의 책으로 삼는 것이다.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며, 현실의 진리에 관한 책이다. 이것은 삶의 전체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있기에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악에 침묵하지 않는 자세다.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악에 편에서는 악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보수와 진보의 편이 아니라 공의의 자리에 서야 한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세다. 사랑이 없는 선지자, 사랑이 없는 현실주의자 그것은 능력이 없다. 사랑이 식어지면 남는 것은 형식과 위선과 탐욕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이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참고도서 ∴

스티븐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프란시스 웨퍼, 『기독교와 정부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

프란시스 웨퍼, 『기독교선언』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기독교세계관학교>의 강의내용 일부이다.



글 | 신동식

충신대학교 신학 대학원을 졸업, 고양시 원당의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저서로는 『청년 내가 가야 할 길』(토라),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기독교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교회회복-빠름에서 바름으로』(우리시대) 등이 있다.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으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를 통해 본 기독교 사회 윤리-

이춘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만 살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가정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그 곳에서 자녀들이 교육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도록 만들며, 공동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원칙과 시스템을 세우도록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종교적 언어만이 아닌 사회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언어’를 다른 말로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독교인들은 될 수 있는 데로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 윤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했듯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원리와 가치를 사회의 언어로 풀어내어 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를 기독교화 시키려는 기획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생존과 삶, 정체성과 관계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기독교 사회 윤리’라고 부른다. 아쉽게도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달도 안 되어 기독교

계의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책임 소재를 더 이상 따지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기보다는 국가 안전 시스템의 불안함과 사회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태도가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물이었다. 기독교인이라면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하여도 철저히 책임을 따져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개혁하여 바른 사회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교회 밖,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성도들의 삶이 터전인 사회와 소통할 능력이 없는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세월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갈 바를 모르고 좌초하고 있는 세월호와 같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독교는 신앙의 정통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성경의 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 속에는 시대적 책무를 깊이 깨닫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사회와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시도한 인물들이 있어 왔다. 이들 중 한 인물을 소개하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한다. 그가 바로 1837년 네덜란

드의 항구도시 마이스슬루이스(Maassluis)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per, 화란어: Abraham Kuijper)이다. 그는 레이든 대학(Leiden University)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교구 목사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1874년 목사직을 사임하고 정치가로서 입문하였다. 이후 그는 저널리스트, 교육가, 하원의원, 총리, 교수, 저술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데 탁월함으로 보여 왔다.

사회 개혁가로서의 카이퍼

하원의원으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한 1874년 어느 날, 카이퍼는 동료 의원들 앞에 서서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특별 노동법” 제정을 위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골 지역에서, 일곱 살의 어린이가 6일 동안 85시간에서 8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행이 어느 정도로 극에 이르렀나하면,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마저 새벽마다 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강제로 깨워 공장에 보낼 정도입니다(프람스마,146).

잠시 쉬었다가 카이퍼는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들어 야고보서 5장 1절을 읽기 시작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어 그는 연설을 계속하였다.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의 귀에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들렸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사도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리스도가 노동자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프람스마,146)

지금 읽기



「기독교와 사회문제」

아브라함 카이퍼.
조계광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카이퍼의 연설에 동조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배의원들은 카이퍼를 세상물정 모르는 목사 출신에다가 37살의 애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네덜란드 의회는 1874년 어린이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같은 카이퍼의 열정과 집요함을 두고 그의 반대파 자유주의 언론매체인 알허메인 한덜스블라트(Algemeen Handelsblad)지는 카이퍼를 “열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자라고 칭하였다. 그 후로 이것은 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1886년에 실시된 국가 공공조사를 통해 1874년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일삼고 있었다는 것이 들어났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카이퍼는 『수공업』(Handenarbeid: Manual Labour, 1889)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1891년 11월 9~12일 “제 1차 기독교 사회적 회의”를 열어 기독교인들에게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발언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였다. 이것들 중 하나를 소개하면 “노동자는 그에 합당한 값을 받아야하며, 일한 이후에 반드시 쉴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사회적 회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에도 계속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카이퍼의 주장은 백 년이 넘는 지금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지난 대선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슬

로건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최근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하루 최소 12시간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인간다움은 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쉼에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약 120년 전에 바다 건너 네덜란드의 기독교인 정치가인 카이퍼를 통해 주장되었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들과 아이들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확대의 정치와 사회 윤리를 실현하려하였다. 또한 제 1차 기독교 사회적 회의는 당시 만연한 인간 중심적 사상과 프랑크 혁명에 영향 받는 자유주의 사상, 또한 당시 떠오르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의 무신론적 배경을 철저히 경계하는 선언도 함께 하였다. 이렇듯 카이퍼와 그의 동료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통해 세상을 균형 있게 판단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근대 한국의 주류 사회는 노동조합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복이나 빨갱이, 사회주의자 등의 프레임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다보니 경제 환경이 기업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고착되어 왔다.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마저도 복지와 이데올로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일부 기독교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논리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수적인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카이퍼와 그의 동료 기독교인 의원들과 비교한다면 균형을 잃은 태도이다. 보수적이며 정통 신앙을 가질수록 약자를 배려하고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한 내용처럼 균등케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가로서의 카이퍼

기독교 사회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만이 아닌 건강한 신앙인들을 길러내야



지금 읽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루이스 프람스마.

이상웅, 김상래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들, 2011.

만 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당시 인간 중심적인 자율성에 근거한 근대적 대학 교육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카이퍼는 반혁명당(ARP)의 당수(1878년)가 된 후 교육 개혁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였다. 그와 동료들은 1869년부터 “자유 기독교 학교를 위한 학교투쟁”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학교를 준비해 왔다. 1880년에 설립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Free University)이 그 결실이었다.

자유대학의 설립 목적은 국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학교를 독립하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대학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카이퍼는 기독교 신앙과 일반학문,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을 통합하는 교육을 자유대학을 통해 실현하고자했던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유대학은 국가로부터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는 것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 후에 카이퍼는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 자유대학도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카이퍼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대학 설립과 교육에 대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들 통해서만 참된 기독교 사회윤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그렇다고 카이퍼가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길러내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리처드 마우(Richard John Mouw)는 “정치 활동에 관한 의견에서 카이퍼는 우리가 큰 승리들을 전혀 얻을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힌다(마우, 165). 또한 마우는 카이퍼의 사상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메시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메시야의 재림을 기대하며 모든 가능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바른 태도임을 가르쳐 준다고 주장한다.

카이퍼처럼 꿈꾸자

1874년 정치에 입문해서 1920년 사망하기까지 카이퍼는 약 반백년 동안 기독교인 정치가로서 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다. 이러한 카이퍼의 삶과 사상에도 비판받을 것들이 있다.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식민지 정책을 이끌었던 제국주의자였다. 그는 또한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네덜란드 이주민인 보어인들의 흑인 차별과 노예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 현대적 복지와 노동 개념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국가 개입의 최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카이퍼가 19세에 속한 인물이라 점을 고려해야한다. 제 아무리 탁월한 개혁가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오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카이퍼가 추진했던 정치, 사회, 교육 개혁은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보다 훨씬 개혁적인 것들이었다. 이는 그가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꿈꾸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기독교적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다. 산상수훈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있기



지금 읽기

『아브라함 카이퍼』
리처드 마우.
강성호 옮김.
서울: SFC, 2015.

때문이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해 보여도 성경 속에 있는 가치와 윤리는 기독교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신자의 변화된 양심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양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인물이 바로 카이퍼였다. 필자는 이것이 그를 열정적으로 꿈꾸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 | 이춘성 목사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13

비텐베르크에서의 결혼 1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터의 개혁 저술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영향력은 수도원 공동체에도 미쳤다. 수도원이 거룩한 장소라며 세속 사회와 담을 쌓고 살던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은 불안에 떨었는데, 수도사들이 영성에 등한시 하는 영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장 수도원 행정, 살림살이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사들은 농사를 지어야 했고, 매 끼니를 지어야 했으며, 말, 돼지 등 가축을 건사해야했고, 수도원이 운영되는 모든 일을 도맡아해야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거룩한 삶이란 수도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속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부르심(Calling)의 인식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녀원에서도 볼 수 있었다. 많은 수녀원에서는 허가없이 문밖을 나설 수 없게 금주령이 선포되었다. 수녀들이 마을, 도시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수도사들이 깨달은 것과 같았다. 수녀원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들었다. 수녀들은 환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때로 가혹했다. 수녀원과 결탁한 성주들의 군인이 그녀들을 잡아들여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투옥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는 마녀라는 딱지를 붙여 죽음에 처해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하지만 수녀원에 있던 수녀들이 '맘 안에서 자유'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자 더 이상 수녀원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는 목숨을 걸고 수녀원을 탈출한 수녀 중 한 명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매일 풀만 먹고는 못살겠어요. 우리가 잡은 물고기, 우리 닭, 우리가 만든 버터 다 우리가 가질 거예요... 악마는 우리를 안 잡아가요. 당신을 잡아가겠소!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A.사이프, 『불순종의 아이들』). 보라 수녀는 수녀원에 몰래 들어온 루터의 글을 읽었다. 그 글은 그녀 뿐 아니라 여러 수녀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도원에서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갇혀 살 수 없었다. 보라는 여러 명의 수녀들과 함께 수녀원을 탈출하기에 이른다. 그 시도는 성공했고, 보라는 나중에 루터를 만나게 된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새 이름

어느 노 교수의 컴퓨터가 이상하다 해서 수리공이 점검을 하다가 참새, 황새, 까마귀 등 새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했다.

수리공: “교수님은 조류학을 전공하시는가 보죠.”

교수: “아니야. 철학 전공이야.”

수리공: “그러면 왜 새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이 이렇게 많죠?”

교수: “이놈의 컴퓨터가 걸핏하면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해서

빼꾸기, 까마귀 등 새 이름으로 저장했는데

그 동안 내가 아는 새 이름은 다 써버려서

나중에는 잠자리, 파리 등 날개달린 곤충까지 다 동원했어.

그런데 그런 거는 새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는 않고 계속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만 해.

그리고 칸트의 윤리학에 대해서 내가 쓴 논문이 어느 새의 주소에 있는지,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미치겠어, 정말!”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BE+LIVE+R

세계관 운동, 길을 묻다! - 세 번째

세상보기

버려진다는 것의 의미

묻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14)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

세계관동역회 통합 이후 7년, 길을 묻다

SPEAKER : 양희송 (청어람ARMC 대표),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타 기관의 단체장의 시선으로 본 세계관동역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지난 1,2월호에 소개하였다. 세계관동역회 임원을 대상으로 이런 장은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월드뷰의 지면을 통해 담도록 하겠다.



[1월호] 이강일 _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와 추이

[2월호] 양희송 _ 기독교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

[3월호] 대담, 물고 답하다

세계관동역회 임원(이하 세동)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한 크리스천 사회(christian society)의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양희송 '한국 기독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교회가 개신교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기존 방식은 대형교회나 교단, NCC처럼 위임받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할 누군가를 찾는다면 기존 방식은 대형교회나 교단, 위임받은 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안의 주제가 기독교 관련된 교육이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성은 교육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전문가에게, 법 관련한 사안이라면 기독교 법률 전문가에게, 의료인 문제라면 기독교 의료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1차적 책임성을 갖고 답변할 의무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기독교 사회(christian society, 지난 2월호 참고)'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구조가 아닌, 해당영역의 기독교적 안목을 지닌 전문 집단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교계의 대표들이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잘 이해하지도 못한 사안을 대변하다보니 언론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나마 최근에 기독교 직능단체들 몇몇 곳이 이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법조 등에서는 상당히 노력했고 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자리를 잡으면 훗날에는 직접 발언, 혹은 정확한 자문으로 교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동 두 분의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세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세계관동역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선교단체 속, 세대 변화의 전환점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더 해봐야겠습니다.

양희승 더 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해온 복음전도와 제자양육의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으나 양육은 어떤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IVF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주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참고도서,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IVP). 커리큘럼의 재개발이며 콘텐츠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갖고 있던 피상성, 일정기간 동안 서구의 특수를 그간 누렸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이 지나가며 한국사회와 서구가 시차가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 맥락에서 정밀하게 조율된 것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번역물을 그대로 들여오며 10여년이 지났고, 그 사이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트렌드가 해외 선교나 선교 운동 등으로 활동이 강조되어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열심히 앉아서 양육하고 학습하던 것과 어마어마하게 커진 선교운동이 맞바꾼 듯한 느낌도 듭니다.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성운동과 제자훈련이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오히려 핑퐁한 활동력을 지닌 선교운동으로 이양하다 이제는 이마저도 기울고 그 사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맥락에서 정밀하게 조율된 소프트웨어를 준비할 시점을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이강일 간단히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가장 큰 부분이 학습방법이 바뀐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은, 세계관이라는 용어의 전수가 아니라, 세상의 혼합주의나 이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인식으로 변혁이든 대조 공동체를 세우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을 세계관이라 칭한다면, 그 방법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커리큘럼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통전적 변혁을 전수할 수 있다면 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80~90년대처럼 다수가 똑같은 활동으로 모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되어 성령 운동하는 그룹선교, 사회변혁그룹 등 골고루 분산되는

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은, 세계관이란 용어의 전수가 아니라 세상의 혼합주의나 이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정 중이라는 겁니다. 학습방법 또한 종래의 세계관 교육,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교육했던 부분과는 달리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양희송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텍스트 자체가 유효기간이 지난(out of date)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읽은 책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웨퍼의 저술의 경우에는 지금 세대들과 함께 읽을 때, 당시 사조나 논의를 읽어내는 자체가 지금과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미 있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세계관 관련된 서적들 중에는 초창기에 나온 책들 또한 세월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미미합니다. 이강일 소장 말처럼,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에 관련된 연구들을 학생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학습을 하며 그것과 보조를 맞춰 대등하게 세계관적 저술을 읽어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오래전 것이거나 개론서에 가까워 본격적으로 어떤 논의를 펼치기에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심도 있게 접근하여 원전으로 공부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세계관 관련 도서들은 너무 가볍고 간단한 서술에 그치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분야에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과 함께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어람아카데미는 강영안 교수님의 강의를 무게감 있는 주제로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의

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개론적 세계관 강좌는 이미 많이 접했고 자료도 많습니다. 강영안 교수님 강의의 강점은 대중성이 아니라 원전이거든요. 원전으로 승부를 거니까 쉽게 만족하지 않는 그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기독교 학자로 1차 자료를 스스로 읽어 내며 논의를 펼쳐가는 내공, 지적 자신감에 지금 세대들은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우리가 다시 세계관 교과서 같은 텍스트를 보면서 2차, 3차 평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사람 모으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원전에 부합할만한 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현재 인문학 붐으로 해당 영역의 전문 학자들을 대중 앞으로 불러낸 동영상이나 강좌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세계관동역회에서 선보일 수 있는 지성이나 담론의 무게가 그 정도의 급은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동 세계관의 학적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결국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희송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인데요, 아쉬운 것은 그동안 세계관 운동을 해온 그룹에서 내놓은 과업이 이게 '기독교세계관적 삶이다' 말할만한 좋은 예들이 잘 발굴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기업의 직업소명과 경영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 소개했더니, 노동윤리나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집니다. 물론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한 과업들이 나와 줘야 세계관을 말할 기회라도 얻는데 우리가 쓸 만한 예시들이 없진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있어야겠습니다.

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인이자 교수

로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 조직 자체가 긴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슈 대응이나 운동도 이런 조직의 특수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월드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동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을 비정규직 연구자와 강사들을 견인할 구조에 제안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양희승 딱히 대안이 이거다!가 아니고 동역회도 바로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의식적인 고민이 있어야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학계를 잘 모르고 대안을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의제로 세계관동역회가 다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동 예를 들면 젊은 3,4세대 그룹하고 우리 늙은 1,2세대와의 대화나 느슨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희승 그렇죠. 청어람에서는 기독교 소장연구자 컨퍼런스를 4회 정도 했었습니다. 수평적으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논문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선배세대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난상토론도 했었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 보다 다만 이 문제가 중요하기에 논의의 장을 열어둔다는 것만 해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세계관동역회가 그런 논의의 장들 자체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리매김으로 여러 그룹들이 와서 때론 협력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장이라도 만든다면 자생적으로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격려가, 세계관동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주어진 판을 잘 읽어내어 자연스럽게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

습니다.

※ 지면을 통해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양희승 청어람 ARMC 대표님,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님 두 분과 참석해주신 임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다음 임원대상 강좌는 4월 중에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를 공모합니다!
- 세계관연구소 시상금 100만원 논문제안서 응모전 -

- **논문 주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 학술적인 논문
- **공모 요강**
 - **제출기한**: 2017. 5. 30(화)까지 논문제안서 제출
 - **제출자료**: 1) 연구논문 제안서 (7매 내외, 참고문헌 별도)
2) 이력서 (자유형식이나 단, 이메일, 손전화 필수 기재)
* 제출시 메일 제목을 "[이름] 논문제안서 공모"로 기재
 - **제출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
e-mail : gihakyun@daum.net
 - **선정절차**: 제안서 심사 후 선정 → 선정안내 및 논문작성 요청 → 논문심사 후 게재
 - **선정편수**: 5편 내외 (비전임 신진학자, 대학원생 우대함)
 - **발표일자**: 2017.6.20(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개별연락, 월드뷰 공시)

- **특전 및 의무**
 -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선정시와 논문 게재시 시상금 100만원/편 지급함. (제안서 채택시 50만원, 『신앙과 학문』 논문 게재시 50만원 지급)
 -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에 게재여부 결정함.
 - 선정된 논문의 『신앙과 학문』에 심사료와 게재료를 먼저 (단, 23권 1호(18년 3월호) 발행분에 한함).
 - 선정된 논문의 제안서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본회 학술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투고 및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전제로 함.

◦ **문의** 세계관연구소 담당
(tel: 02-3272-4967, 신효영 사무국장)

버려진다는 것의 의미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내 자신보다 주위 사람들의 보는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영국에서 태어나 30년 이상 한국과 연을 맺고 있는 앨런 팀블릭(Alan Timblick)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모습을 짚어준다. 그는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을 지냈다. 한국 사회를 보는 그의 눈은 예리하다. 한옥 지붕 곡선의 아름다움을 알기에, 옛것을 너무 쉽게 허무는 것을 아쉬워한다.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을 안타까워한다. 2010년 한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서울에서는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차로 변경을 원할 때 그들은 여러분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주는 대신, 차로를 좁히면서 당신 앞으로 들어간다.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가 용이하도 록 길가에 차를 붙이는 대신 길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다. 뒤차가 불편하든지 말든지 말이다. 방향 전환이나 정지도 사전 신호가 없다. 운전자가 진

입로에 여유가 생기기도 전에 차를 들이밀고 있어 교차로는 항상 병목 현상에 시달린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팀블릭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속상해 한다. 한국인들이 지인과 타인을 차별한다고 지적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같은 속담의 이면을 지적 받으니, 찡찡은 웃음을 짓게 된다. 힘들 때 서로 돕는 ‘우리가 남이가’란 끼리끼리 문화는 따뜻한 그늘을 만들지만, 추운 그늘도 만든다. 이런 이중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기견이 그중 하나이다.

우리 시대의 민낯, 유기견

통계에 보니, 한해 전국에서 10만 마리의 개들이 주인에게 버려진다.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쫓거나 병에

걸리면, 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대개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우지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버린다. 유기견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동물이 있다. 실험용이나 상업용으로 쓰이는 동물이다. 이들에게 실험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캐나다 구스(Canada Goose) 점퍼는 보온성이 뛰어난 의류 브랜드이다. 문제는 거위나 오리가 산채로 털이 뽑히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모자 장식에 코요테 털을 쓰는데, 사냥꾼의 뒷에 걸린 코요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으로 발버둥 친다.

동물은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띠고 있다. 동물권, 동물복지와 동물윤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얼마 전 강아지 공장의 추악한 비밀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 사진이 SNS에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지만, 닭은 A4용지 한 장 크기 도 안 되는 공간에 갇혀 지낸다. 공장식 농장의 돼지는 좁은 우리에서 강제로 몸이 불러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 물지 못하도록 아예 새끼 때 앞니를 뽑아 버린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동물보호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려는 사고가 사회적 약자, 인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시대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런 민낯은 사회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를 받아들이지만, 일부에선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여전하다. 게다가 인종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한국에선 혈통에 대한 집착과 편견이 있다. 잡종은 태생이 열등하다는 뜻이다. 잡종은 스스로 번식하는 잡다한 풀을 의미한다. 하지만 잡종을 달리 표현하면 하이브리드(hybrid)가 된다. 잡종은 아직 그 가치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이 된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동거(同居)에 대한 거부감은 확연히 줄었다. 동거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현

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 보면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삶이 불투명한 지금, 동거는 차선책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하면, 동거는 상대를 품기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느 순간, 상대의 눈에 벗어나면, 관계는 깨진다. 함께 사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건, 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버린다.

단절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 고독사(孤獨死)

고독은 한 번도 유행한 적이 없지만, 오늘날 고독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휴대폰을 붙들고 살고,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어떤 이는 마음을 다쳐 산에 들어가 은둔한다. 또 어떤 이는 고독사로 죽거나 외로움에 목숨을 끊기도 한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자아(自我)는 더 가벼워진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자기만의 방'에 숨는다. 작가 마루야마 겐지(丸山 健二)는 고독을 이길 힘이 없으면 작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는 혼자일 때가 많다. 그래서 고독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이방인』, 『노인과 바다』, 『백년 동안의 고독』 같은 소설들은 고독이란 인간의 감정을 다룬다. 폴 오스터(Paul Auster)의 『고독의 발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불안가능하다는 걸 실감한다. 요즘 고독은 다르게 이해된다. 고독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읽힌다. 이제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아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고독(loneliness)과 홀로 있는 것(being alone)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고독은 연결이 끊어진 퓨즈 같은 느낌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병이 낫기를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

에 38년 동안 누워 있던 병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 남자는 고독하다. 바로 앞장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간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셨다. 예수님은 병자가 병보다 더 깊은 아픔에 시달리고 있음을 아셨던 것이다. 바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이다. 병자에게는 물이 요동하는 순간에, 그를 연못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병이 아니라 고독에,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버려졌다는 상처받은 감정에 묶여 있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채널A>에서 다큐스페셜로 제작된 「남자 혼자 죽다」란 방송을 보니,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놀랍게도 90 퍼센트가 남자다. 심지어 청년까지 홀로 죽는다. 한때는 회사의 CEO, 요리사, 혹은 택시 기사였는데, 죽었다. 홀로 머물던 자리를 치울 사람이 필요해서, 유품정리업도 바빠졌다. 망자는 대부분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돈은 세상의 번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 사회적 관계의 끈이 약한 이들에게, 경제력 상실은 치명타였다. 병이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자, 이들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무심한 일상의 비극을 막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돈은 문제의 원인인긴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38년 된 병자나 고독사한 사람 모두 가장 절실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이들을 아프게 했는지 알고 있다. 아픈 이유도 안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를 포함하는 공동체가 절실하단 뜻이다. 사도행전 2장 끝에 나오는 공동체는 지금도 통하기 마련이다. 실천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을 동반한다. 신학자 볼프(Wolf)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듯이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약자는 모두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스웨터 소매에서 실밥이 풀릴 땐 언제나 가장

자리에서 시작한다. 고독은 가장자리에 선 이들을 표적(標的)으로 삼는다. 사실 감정과 네트워크는 부익부 빈익빈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친구가 많을수록 우리는 혜택이 커지고, 친구가 적을수록 그 혜택이 적어진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복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삶이 자신이 생각한대로 풀려가지 않아 절망한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일이다.

슬픔과 달리 절망은 위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녀를 회복시켰다. 이웃의 시선을 피하려고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가. 복음을 이해하자 절망이 사라졌다. 요한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적고 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39절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는지라”고 말한다. 한 여인이 회복되자, 그 소식은 전체 마을로 퍼져간다. 동시에 용도 폐기된 소셜 네트워크가 다시 작동하게 된다.

일상이란 미시담론

요즘 키워드는 성공과 힐링이다. 어느 것이든 몰입하면 시선이 좁아진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언제나 ‘어떻게 사는가’와 직결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성경적인 믿음을 잊은 것 같다. 복음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이다. 믿음은 사회적으로 ‘자선’을, 공적으로 ‘정의’를 낳는다. 이런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할 때가 많다. 하지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왜 과부, 나병환자, 창녀, 고아와 거지, 세리, 죄인들에게로 오셨을까?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짧다고 말했지만, 우리 그 짧은 인생도 헛되이 쓸 때가 많다.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 탓에, 사소한 일상의 중요함을 깨닫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로 산다는 것

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사소한 일상이 구원이란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을 내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는다. 신앙은 성경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텍스트로 구성되기에,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싸움이 중요하다. 오늘이란 하루는 하나님이 성경말씀을 내 삶에 담기위해 주신 시간이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시작한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연보한 과부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관찰자였던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간파하셨다. 어떤 신학자는 하루 번 돈이 겨우 동전 두 닢인 가슴 아픈 현실을 읽어야 하고, 동시에 두 렵돈은 과부의 마지막 한 푼까지 바치게 하는 종교지도자의 탐욕을 경고한다고 해석한다.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와 같은 시대를 사셨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겹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시간, 재물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누가 우리 삶의 주인(主人)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거시담론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미시담론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담론과 미시담론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한 개인의 미시적 삶은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란 거시담론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왕따, 결혼자녀, 노숙자, 싱글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같은 말들은 영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단어들은 일상에서 내 태도(attitude)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일상은 개인의 믿음, 가치, 태도, 성품, 배려 같은 것을 연습하는 영적 훈련장과 같다.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절묘한 반전

우리 삶에서 하찮은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

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살피신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여럿이지만,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방관한 탓도 크다. 그것은 불편한 순간 서로를 품기보다 배척하고 버렸다는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차 없이 직원들을 해고한다. 좋은 회사는 제품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몸담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두고 한 말은 이것은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나에게 조각이란 돌을 깨뜨려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다.”

세상의 도공(陶工)들은 흙이 있는 도자기를 폐기처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흙이 많은 도자기를 품어 명품 도자기로 빚어낸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실 때가 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에 시달리는 떨기나무처럼 말이다. 버려진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볼품 없는 나무를 하나님은 다듬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기물로 빚으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다. 때문에 행복은 각자가 꿈꾸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지만, 그 끝은 언제나 아름답다.



글 |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화 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사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 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새생명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같은 사건의 양면이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은 신화라고 생각하고 부인하기도 한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지만 '부활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제17주일은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기보다는 부활의 '유익'에 대하여서만 가르친다. 이러한 모습은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45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을 (1) 우리의 칭의, (2)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 (3)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가르친다. 과거 시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현재 시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며, 미래 시제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우리의 믿음

현대인들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고 여

기고서, 부활의 사실보다는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악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의가 승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소위 부활의 의미라는 것도 공허할 뿐이다. 무덤에 묻혀 계시지만 한 예수님이라면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따라서 그분의 교훈이나 모범 또한 여전히 무덤에 묻힌 것일 뿐이다.

이처럼 부활의 사실이 없이는 부활의 의미도 없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 주시고 40일 동안에 열한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행 1:3), 천사도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5-6)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고, 제자들은 그저 숨어 있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인봉하기를 청하였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부활의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눅 24:22-24). 그들은 여전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고(눅 24:25), 주님으로부터 구약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주님의 축사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눅 24:31-32).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부활의 사실만을 증명하려는 것은 결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부활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사실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도 없다. 고린도 교회에는 신자가 새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부활일 뿐, 몸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따라서 사람의 부활도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고전 15:17)이라고 가르쳤다. 이렇듯 우리는 종종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릇된 이분법의 성향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다. 45문을 보더라도 부활의 ‘유익’을 묻고는, 그 대답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사실’부터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는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라는 ‘사실’의 단순한 진술 안에서 부활의 ‘의미’가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칭의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1)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행 2:24).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지상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을 법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의롭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40문) 그의 부활도 요구하였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를 사망에 그대로 두실 수 없었다.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행 2:24). 이 점에서 부활은 완전한 순종을 하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칭의의 선언이다.¹⁾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함을 얻으신 일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다. 바울 사도는 경건의 비밀을 찬송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딤펴전 3:16)고 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을 이야기했고, 그 중간에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할 때에,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신’ 시기는 다른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셨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롬 4:25)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의 의롭다 하심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성은 그 밖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 제사장이 나와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였다. 바르게 드린 제사의 효과가 그 백성에게 미쳤던 것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실체인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다(요 20:19). 죄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강을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리셨고 그 결과로 의를 얻으셨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의를 얻으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순

전히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부활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롬 4:25).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벧전 1:3).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새로운 생명 (성화)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다(롬 6:10-11).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처럼, 신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로 인하여 신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마 22:32; 막 12:27; 눅 20:38).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신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은 새로운 생명은 다른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것처럼 바라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내 드러났고, 신약의 신자들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의 삶은 원죄의 세력 아래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죄의 책임과 그 세력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둘 중 하나만 취할 수는 없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한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새로운 생활을

1. 1) R. B. Gaffin, Jr., Resurrection and Redemption, pp. 119-124.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새로운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태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분을 본받도록 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아 그 형상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는 더욱 삼위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간다.

사도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엡 5:1)고 교훈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데서 나타나며(엡 5:3)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서 나타난다(엡 5:8-9). 이처럼 새로운 생명은 구체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영화)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와 연합한 자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여기에서 보증이라는 말은, 첫 할부금을 내고 물건을 쓰는 것과 같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므로, 그분께 속한 사람도 부활에 참여한다(고전 15:20). ‘첫 열매’란, 결실한 밭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셨으면 이것은 전체를 받으셨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면 그분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부활한 것이다. 신자의 부활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확실한 실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이 모두 마칠 때에, 마침내 신자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는 일도 없이 모든 것이 완성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한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리라

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살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아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다(고전 13:12).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요일 3:2).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활은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살리셨고(행 2:24; 롬 4:25), 성자께서는 부활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셨으며(롬 1:4; 14:9; 요 10:18), 또한 성신께서도 주님의 부활을 위해 일하셨다(롬 8:11).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는 구원의 일을 이러한 부활로써 온전히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도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45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칭의와 거룩한 삶, 장래의 부

활과 관련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으로 가르친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그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나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로서는 시간 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에 골몰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시선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 3:1-3).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간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려진 자로서 산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자들은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골 3:4).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처럼 ‘산 소망’이 있다(벧전 1:3).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산 소망’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도 진리로 인도하시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시 73:24).

신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부끄러운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요 5:29; 단 12:2; 계 20:13-14).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나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두셨기에, 어떤 때는 신자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쓰임을 받는 자의 마음은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는 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숙한 사람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러한 성숙성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판단하면 안 된다. 부활의 생명으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알려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세상에서 가려졌을 때에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뭔지 모르게 불안한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가려진 사람은 장차 큰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재고: 정체성, 타자, 구조-

Christian Worldview: What to Consider? Reconsideration of Identity, Other and Structure

낮선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누구에게나 설레임과 두려움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준다. 그 중에서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특별한 궁금증을 제기한다. 목회자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의 차이는 무엇인지가 궁금한 지점이고, 비목회자 원우들에게는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데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향하는 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학업의 커리큘럼이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개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출발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고민을 출발하는 일련의 핵심어들로 정체성, 타자,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이드가 자신의 저작 “모세와 유일신교”에서 분석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통해 널리 사용되게 된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민족, 국가,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구별된 인식인 동

시에, 타자, 즉 남들에 대한 규정이기도 한다. 때문에 정체성과 타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내세우는 정체성 혹은 명시적 정체성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정체성이다. 기독교들에게 정체성은 다른 이들과 스스로를 구별 짓는 핵심적인 것이지만, 기독교의 범주가 다양한 만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른바 복음주의의 기독교권 내에서 편리하게 규정하는 지표들이 있다. 동성애, 낙태에 대한 태도나 사형제도, 진화론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와 낙태 반대 등에 대한 견해를 복음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느냐를 판단하는 리트머스지로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해 미국 대선 당시 다수의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을 보았다. 미 대선을 지켜보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복음주의가 내세우는 가치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운 트럼프의 주장을 공동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가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

드러나는 정체성 혹은 암묵적인 정체성

표면적으로는 특정한 종교적, 국가적 신념이라는 어휘가 강조되지만, 그 밑에 숨어 있어 생성되는 궁극적인 결과물은 동일하다. 바로, 극단적 형태의 타자화이다. 나와 다른 피부색, 종교적 가치, 문화와 정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기 보다는 타자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는 정신적 차별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민 제한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같은 실질적인 물리적 분리까지 동반할 수 있다. 만약 추구하는 정체성이 인류 보편의 가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향한 것이라면, 그 정체성이 강화될 수록 차별과 타자화가 강조되는 사회가 된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이나, 그것이 오용될 때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대되는 정체성

기독교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구호와와는 별개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기독교에 대해 '기대하는 정체성'이 있다. VIEW에서는 전 재학생들이 모여 매 학기 말 우수 논문이나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Paper Day의 전통이 있다. 지난해 졸업 논문 발표 때에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작품이 소개된 적이 있다. 그 발표에서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바는 작가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마 작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적어도 그 책이 담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체성, 가치란 것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들이나 공동체가 전유하는 가치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차별 없는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 등이 어떤 종교적 어휘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를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반국가적이고, 무신론을 신봉하는 반윤리적인 집단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박해했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버림 받은 약자들인 노예, 여성,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영접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냈다. 문화적 인종주의를 표방한 헬레니즘과 혈통적 인종주의자들인 히브리인의 장벽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지향하였다. 이렇듯 타자를 만듦으로써 구현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타자를 포용함으로써, 혹은 스스로 타자가 됨으로써 구현되는 정체성이 기독교 정체성의 본질이며,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방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어떠한 구호로 능동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수동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정체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와 남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기재로 사용되면 곤란하다. 내세우는 정체성은 잘못하면 타자를 통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된다. 정체성을 지키자는 대의 명분이 세상과 정신적, 물리적 장벽을 높이 쌓을 수 있다. 거친 비유이기는 하지만, 11~13세기 십자군 운동의 광기에 휩쓸렸던 절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실상은 이슬람과 접경 지대에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 한 번도 이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는 내륙 지역의 사람들이 상상 속의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참여한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신자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타자에 대한 봉사를 위한 내적 집중'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더불어 공동체의 정체성 주장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공동체가 지닌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창조한다.”

— 『신도의 공동생활』, 본회퍼

다시 풀어 말하자면,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으며,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밖의 타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타자 속으로, 세상 속으로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엄연히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역사 속의 제도라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즉, 교회 내부에서의 자정의 노력이나, 신학적 논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제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당대의 사회에 활발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때는 예외 없이 교회가 시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틀을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했을 때였다. 초대 교회처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구조화해 놓은 인종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복

음이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구조와 경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장기 지속되는 시대의 구조'에 대한 통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역사가들은 역사가 인간의 활동과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문서실에 들어앉아 조상들이 남긴 사료를 조심스레 읽어가며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런데 근대 서구 역사가들은 인간의 행위는 사실상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지리적, 물리적, 정신적 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구조를 '장기 지속'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문헌 연구 중심이던 역사 연구가 인류학, 경제학, 지리학, 고고학 등과 연계하여 그 지평을 넓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물리적 구조가 거의 변함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말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조가 우리의 사고 형성을 틀 지운다는 것이다. 20세기 서구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인식은 사실 우리 조상들이 몇 세기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던 바이기도 한다.

18세기에 지어진 춘향가의 산세타령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축하여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터를 보면 ...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성이다.”

지리, 사회, 경제, 정치 구조 등 쉽게 변하지 않는 구

조가 많은 부분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

첫째로, 구조를 보지 못하거나 구조가 변할 수 없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구조를 통해 드러난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처리즘, 레이저노믹스로 대두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경제 물결이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를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대한 구조는 거스를 수 없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이 현명했을까?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자기 계발서에 대한 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긍정의 힘’이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초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양극화, 비윤리성, 교회 세습, 절대 다수 목회자의 생계와 고용의 불안정 문제 등은 교회라는 개별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에 그치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일부이다. 백 보 양보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라면 기도, 회개, 자정 운동을 하거나,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적 지향을 점검하고 확고히 하면 될 것이다. 만약 시대의 산물인 오늘의 교회 형태의 구조를 파악하고 점검하지 않거나, 혹은 구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수라고 본다면 각개 약진하는 것이 최적의 해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의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정당화 하는 이론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여 구조의 전환을 시도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역사의 변곡점은 이 구조가 전환될 때 생겨났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의 문제를 직시하고 도전하여 그 구조를 깨트렸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작동 구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

다. 표면의 뒤에서 작동하는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의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출발점은 이것이다.

불변의 진리로서의 기독교 복음과 진리의 담지체를 지향하는 제도 교회를 동일시 하는 무의식적인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도전하여 깨트린 것이기도 한다. 당대 가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언설을 내세웠지만, 루터는 이에 대응하여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를 통한 구원이라는 가톨릭 교회를 지탱하던 구조의 뼈대를 건드린 순간, 역설적이게도 복음은 제도 교회의 틀에서 질식하던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상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현상을 생성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한 확인을 위한 공부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구조를 읽어나가는 접근법은 자신의 신학적 프레임에 갇혀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학제간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신학이 ‘종합 학문’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아쉽게도 근, 현대를 넘어 오며 기독교 교의와 성서,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좁아졌다. 이것이 현대 학문 체계 속에 신학이라는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천착하는 이유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학문의 통합, 학제적 접근을 통해 교회의 회복과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추구한다.

신입원우들의 VIEW에서의 학업과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적어도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이해의 차이는 있

겠으나 기독교 세계관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한국이라는 곳을 벗어나 지리적으로 캐나다라는 사회에 들어와 하루아침에 타자가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에서, 이곳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을 만나거나 한국 상점에서 일을 하는 경험에서, 이민교회의 목회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 하지만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갈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은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기존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라는 익숙한 장기 지속의 구조에서 벗어났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자면, 15년 전 영국 유학을 갔을 때 한 동안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도 되나?” 라는 죄의식 아닌 죄의식이 든 적이 있다. 캐나다에 온 많은 목회자들이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단란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기쁘고도 낯선 경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이렇듯 정신 없이 돌아가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관습의 틀을 벗어난 곳이 이곳이다. VIEW 공동체는 어떨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 놀지는 않지만 목회자와 비목회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부하고 사귀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교수들이 4박 5일 마이크를 잡고 관광 가이드를 하고, 집을 개방해서 살롱의 호스트가 되어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자로 살며 타자에 대한 공감력을 높여 가고, 한 걸음 떨어져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지 구조에 대해 생각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다. 신입 원우 모두 VIEW에서의 학업과 삶을 통해 정체성과 구조의 틀을 다시금 점검하고 조망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기로 진심으로 바란다.

※ 본 칼럼은 2017년 1월 14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신입생 환영회에서 전한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다.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입학설명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입학설명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7. 03. 10(금) 저녁 7:30
-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지하2층 (합정역 7번출구 뒤돌아 100m 지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와 다른 건물이니 위치를 확인하세요.)
- **문의** : (02) 754-8004

글 | 최중원

현재 VIEW에서 세계관과 지성사 교수로 교회사, 고대 지성사, 중세 지성사, 근대 지성사와 기독교사관과 역사사식 등을 강의하고 있다.

최근 한국 영화 속 '지옥도'의 풍경

- 터널, 부산행, 아수라 3편의 영화 속 우리 사회 읽기 -

들어가는 말

2016년 한 해는 한국 영화 풍년의 해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감독들의 영화가 연달아 개봉하였고, 또 그에 맞추어 영화 담론도 넘쳐났다. 영화인들에게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에게나 큰 잔치와 같은 1년이였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영화들을 돌아보면, '지옥도'라고 하는 테마가 떠오른다. 영화가 은유적metaphor으로, 혹은 사실적reality으로 한국 사회의 지옥과도 풍경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한 편의 영화가 기획되고, 또 그것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뜨거운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특히 흥행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영화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3편의 영화 '터널', '부산행', '아수라'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까 한다.

영화 <부산행>은 천만 영화의 반열에 오를 만큼 화제가 되었다.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애니메이션 감독 출신인 연상호 감독의 첫 실사 영화가 시행착오 없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둔 것도 놀랍다. 이 영화가 이토록 큰 이슈가 된 것은 단순히 좀비 소재의 신선함과 가족애의 감동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은유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은유적으로 그

려주고 있다. 특히 영화를 보면 가장 떠오르는 기억은 얼마 전 한국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인 '세월호 사건'이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그 무시무시한 트라우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열차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버스회사 전무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사건 때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살기위해 아이들을 버리고 나온 선장이 떠오른다. 또 하필 열차에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어른의 이기심으로 첫 희생자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은 아픈 기억의 트라우마를 더 강하게 찌른다. 부산행 열차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이다. 그 공간은 매우 영화적인 공간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유적인 공간이다.

김성훈 감독, 하정우 주연의 <터널>도 꽤 흥행에 성공한 영화다. 그런데 그 성공 이유가 단순한 오락적 재미와 배우의 스타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이 영화 역시 이야기 속에 세월호 사건의 트라우마와 사회의 부조리한 시스템 등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다. 운전 중 터널이 무너져 그 안에 갇히게 된 이정수(하정우)는 곧 구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는 점점 절망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그가 무너지 터널에 갇히게 된, 그리고 구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결국

부실한 공사로 터널이 무너지게 되었고, 정부는 터널에 갇힌 사람을 빨리 구하지 않고,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며 그를 구할지 말지를 토론회를 진행하며 고민한다. 그런데 그 장면을 마냥 웃으며 넘길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사회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 장면에서 모두 우왕좌왕할 때, 구조대원인 오달수의 대사는 굉장히 교훈적이지만,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다. “저기요, 저 안에 있는게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이구요. 자꾸 까먹는 거 같아서...저기 사람이 갇혀있습니다.” 그의 말은 세월호 사건 때 너무 어이없이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다.

이처럼 감독은 터널 속에서 주인공이 생존을 위해 애쓰는 장면도 잘 묘사하고 있지만, 터널 밖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무능한 정부와, 특종에 눈이 먼 언론의 모습, 부실을 낳은 시공업체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이다. 극적으로 이정수를 구조한 이후에도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고, 기념 사진 찍기에 바쁜 언론과 정치인들의 풍경을 볼 때면 그야말로 지옥같고 이수라장과 같은 우리 사회의 풍경을 거울처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는 좀 더 리얼한 묘사로 지옥 같은 사회의 모습을 그린다. 영화는 지역 재개발로 수천억이 뿌려지는 상황 속에서 비리를 저지르고자 하는 시장(황정민)과 그 뒤를 봐주는 형사(정우성), 그리고 이들의 비리를 캐내려는 검사(곽도언)의 대결을 그리는 이야기이다. 그야말로 수컷들의 세계다. 영화는 대체로 어두운 밤의 이미지가 많고, 또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사건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물들의 답답한 내면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준다. 특히나 주인공인 형사 한도경(정우성)의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악과 어둠의 세계 속으로

젖어 들어가는 아이러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보여 지는 지점들이 많다. 그는 근원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뿐인데, 그 평범함 속에서 악이 꽃 피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은 점점 더 큰 물살이 되어 퍼져나가고, 결국 그의 운명은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인 장례식 장에서의 혈흔이 난 무하는 싸움 장면은 그야말로 이수라장이 따로 없다. 그리고 그 난장판 풍경 속에 웬지 우리 사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실루엣이 오버랩 된다. 정말 다시 보기 힘든 지옥 같은 장면이다.

이처럼 올해 이슈가 되었던 3편의 영화는 오락적인 재미도 있지만, 지옥 같은 우리 사회의 풍경을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 풍경을 영화로 마주할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 자체로 현실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자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내면의 욕망에 충실한 삶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결국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영화 속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밟을 밟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 더 끔찍하다. 영화는 우리가 겪었던 아픈 기억의 트라우마를 건드린다.

여전히 한국 영화는 어두운 영화가 대세이다. 사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는 영화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의 인간의 삶을 섬세하게 다루는 영화를 더 보고 싶어진다.

글 |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교육 석사. 영화와 신학,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현재는 중고등학교와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영화예술 교육 강사로, 그리고 독립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코리안대학교 개교를 바라보며

1.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가?

라오스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지만 바다가 전혀 없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중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정도의 면적을 가진 나라로서 인구는 약 700만 정도입니다. 근대사는 매우 복잡한데, 프랑스가 점령하기도 하고, 잠시 동안 일본이 점령하기도 하였고, 또 베트남전쟁 때에는 미국이 개입해서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5년에 사회주의인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우리나라와는 1995년에 정식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유제산을 인정하고, 평화로우며, 개방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장 하나 제대로 없고, 국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관광명소도 별로 없는 GDP 세계 122위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매우 국민들은 매우 온순하고, 친절하며, 급하지 않고, 화도 안내며, 싸움도 없습니다.

2. 선한 가르침으로 운영하는 대학?

언급한대로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이며, 불교국가입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국립대는 수도를 포함 도시 몇 군데일 뿐이고, 교수요원도 석사 이하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연구는 물론 어렵습

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배우고 싶어 하나 갈 곳이 적어 이곳저곳 방황합니다. 선한 가르침이 어려워 소망이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도 기쁜 소식을 주는 방법은 물론 우리 같이 번영된 나라에서 국민들이 장차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선한 가르침으로 운영하는 정규대학을 설립하여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수진이 젊은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섬김과 교육이 살아 움직이는 좋은 대학은 외적으로는 어려워도 최선의 방법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대학을 통해 묶였던 것들이 점점 풀려지고 기쁜 소식이 서서히 알려질 것입니다.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변화되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소유한 인재들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그것들은 전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지닌 대학이 2017년 6월에 시작합니다. 바로 라오코리안대학교(Lao-Korean College, LKC)입니다. 10여년 전 일반적 입장에서 세워진 이 대학은 그동안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라오스에 대학설립을 준비한 라오스대학설립위원회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철학과 이념, 교수진, 시스템 등 모든 분야를 완전히 새로운 틀 안에서 새롭게 구축하여 금년 6월에 다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3. LKC의 교육은?

LKC에는 컴퓨터정보공학과, 영어학과, 한국어학과, 재무회계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등 5개학과가 있으며, 전기공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2016년 라오스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가능한 라오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학중심으로 구조를 조정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수요원은 우리나라나 서구에서 파견된 기쁜 소식을 지닌 헌신된 전문인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초기라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밀착된 삶의 나눔을 위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과 국제화를 위해 대부분 영어로 강의할 예정이며, 한국유학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심어주고, 귀국 후 교수요원이나 중요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으로서 라오스 국가가 꼭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최상의 대학을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과 세계관을 접하는 그런 대학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명감과 세계관을 지닌 교수요원을 초청합니다. 이런 대학이야말로 라오스에 소망을 심는 통로라고 믿고 재정적으로, 혹은 교수요원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LKC는 “그 분이 운영하시며, 역사하시는 대학”이 되고, “진리와 섬김”을 설립정신으로 라오스 및 동남아 젊은이들이 좋은 가르침을 품는 자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4. LKC의 지원은?

LKC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동남아교육문화협력회를 2015년에 창립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회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창립목적은 본 LKC의 설립 및 운영지원은 물론, 라오스 등 동남아 오지의 열악한 초중고 교육기관의 건축, 증축, 보수 및 학생

보건 의약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통하여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이지만 장차 규모가 커지면 당초의 창립 목적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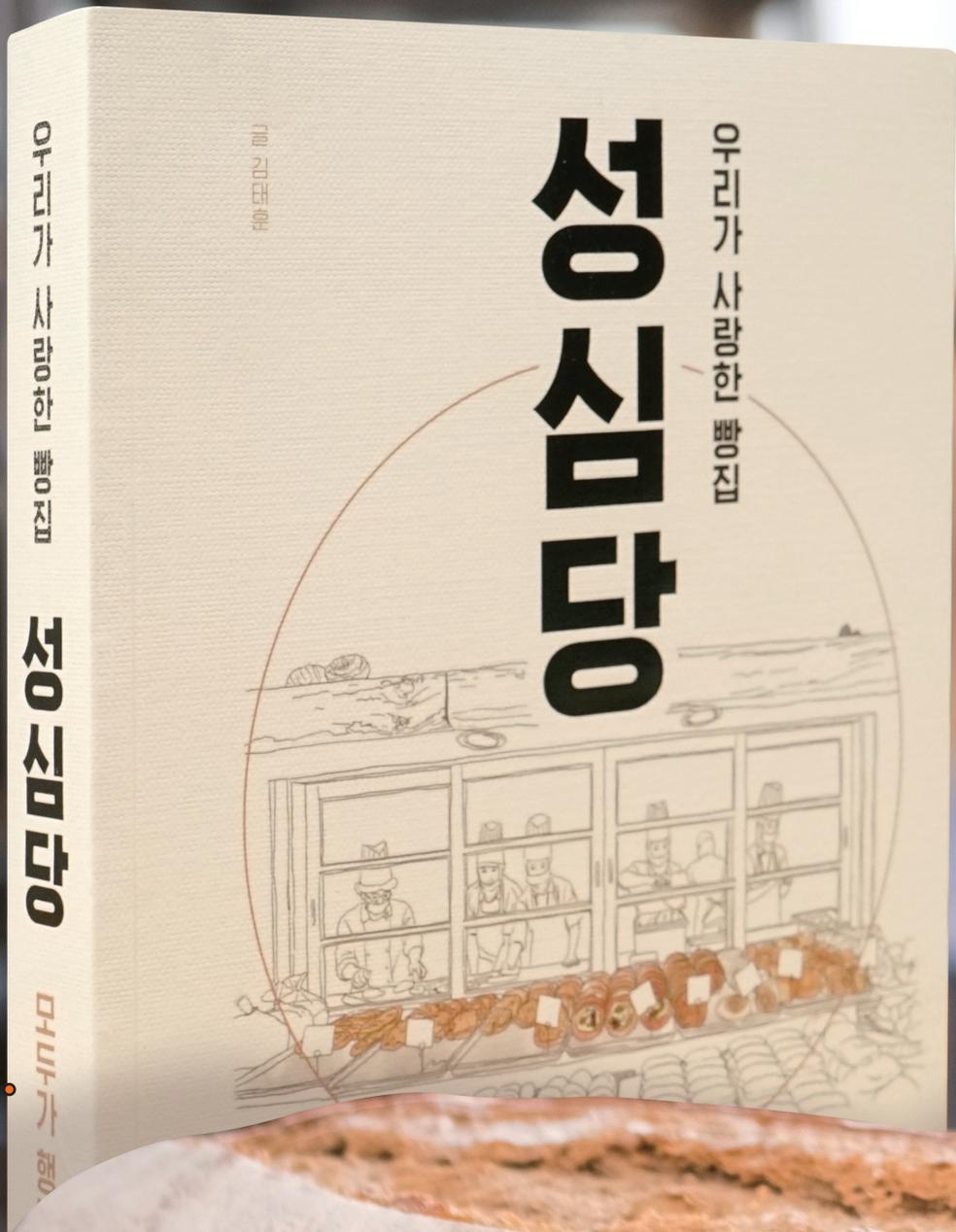
5. 결론

현재는 여러 면에서 소망이 적어 보이는 국가이지만, 이 교육을 통해 민족은 서서히 번영의 나라로 바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이 비전과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명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인적, 물질적인 면에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획하셨기에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역에는 열악하고 가난한 그 민족을 다만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싶으신 분이시면 됩니다. 손을 모으면서 함께 사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통해 라오스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힘겨움에서 소망의 열매를 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 거룩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운영할 라오코리안대학교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라오스를 함께 품으실 교수요원(6개월 내지는 1년 이상 상주 가능한 분, 학과: 영어, 한국어, 컴퓨터IT, 재무회계, 뷰티, 전기공학)을 초빙합니다. LKC 교수요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010-3403-0748((사)동남아교육문화협력회 사무국장 국제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 | 이종범

현재 라오스국립대 초빙교수 및 (사)동남아교육문화협력회 이사장, 전 원광대 교수, (사)DEW 이사, 실행위원장, 통합연구학회 회장 역임



Recommend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김태훈 | 남해의봄날

전국 3대 빵집, 빵 성지순례의 넘버원 코스 성심당은 단순히 유명 빵집이 아닙니다. 대전의 최부자집으로 불리며 성심당 덕분에 대전 시내에 굶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오랜 시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빵을 나누어 온 성심당.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60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Thankgive's Think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다

2005년 1월 22일, 성심당 창업 50주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옆 건물에서 시작된 불이 성심당으로 옮겨 붙었다. 직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마는 3층 공장을 완전히 전소시켰고 발렌타 인테이를 앞두고 제작한 초콜릿은 모두 숯덩이로 변했다. 1층 매장도 일부가 불에 타면서 성심당의 오랜 역사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듯 했다.

사실 성심당의 위기는 화마가 휩쓸기 전부터 시작됐다. 성심당 본점이 있던 원도심의 쇠락, 소비자가 추구하는 제과 트렌드의 변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격적인 진출 등으로 매출은 급감했고, 무리하게 건물을 매입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년 이자를 지불하는 데만 수익 원을 지출해야 했다. 화재가 아니었더라도 성심당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순간,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그만큼 경영난으로 인한 고생이 심했다. 경영인은 마지막을 예감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잿더미 속의 우리 회사 우리가 일으켜 세우자'는 구호를 만들고 일부 복구 작업을 거쳐 6일 만에 다시 빵 생산에 성공하게 된다.

다시 빵을 구워낸 첫 날, 모든 직원이 매장으로 모였고 대표가 갓 구워낸 단팥빵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렸을 때 모든 직원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렇게 일궈낸 기적을 바탕으로 성심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KTX 대전역 입점, 대전 롯데백화점 입점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서울 롯데백화점 입점도 제안 받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남기를 선택한다. 성심당의 60년 이야기를 읽다 보니, 튀김 소보로를 맛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KTX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고 싶어졌다.

keyworld

대전에만 있어요 | 튀김 소보로 | 교황의 식사를 준비한 빵집 지역 경제

Thanks Book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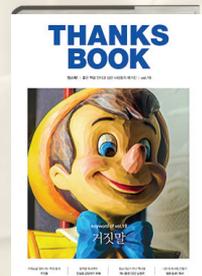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제임스 K. A. 스미스 /
박세혁 옮김 / IVP

예배하는 습관이 있으며, 증인이자 순교자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치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대안적 인간 공동체이다.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예전적 동물', 즉 신념이나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욕망)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세속적 문화기관(쇼핑몰, 국가, 교육)과 예배는 모두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는 '예전'이자 '문화적 실천'이다. 그는 예배가 반문화적 태도(세속적 문화기관과의 분리 추구)를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항적' 실천이 되어야 하며, 특히 기독교 교육이 '교회'의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기독교 예배라는 두꺼운 실천과 구체적으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수도원주의'를 제안하며 문화적 제도의 특정한 양상, 즉 구조가 아닌 방향성에 따라 참여하기를 자제하는 절제를 지니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한 사람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의 삶의 여정과 '정체성'에 대해 떠올랐다. 내가 몸담았던 '실천들', 즉 교육철학, 예배(교회공동체), 세계관/세계관교육, 그리고 다시 예배 공동체. 나의 정체성은 한 때는 교육철학도, 할렐루야 아줌마, 기독교 교육실천가였고 현재는 학생만도 아니고, 할렐루야 아줌마만도 아니고, 실천가만도 아닌 다양한 두꺼의 실천들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엮여 있다.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인간", "교회", "좋은 삶"에 대한 복잡다단한 질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라는 질문과 씨름했던 지난 삶을 정련된 분석과 설명으로 정리하는 기쁨을 누렸다. "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왜 다양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도 내 삶은 그대로이지?", "왜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많은데도 세상 속에 크리스천의 향기가 안 나는 것 같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 본 사람들,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역자,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 특히 교육철학자와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책 속의 한 줄

쇼핑몰과 빅토리아 시크릿, 제리 브룩하이머가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이야기와 이미지, 시각과 청각, 상업화된 '향과 중'을 통해-우리의 오장육부(카르디아)를 사로잡는 데 반해, 교회의 대응은 이상하게도 합리적이다. 교회에서는 일종의 거룩한 강의인 45분간의 교훈적 설교가 그 정점을 이루는 '예배'에 우리를 밀어 넣고 우리의 지성에 교리와 신념을 이식함으로써 그 위험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한다. 쇼핑몰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전적이고 욕망하는 동물임을 이해하는 반면, (개신교) 교회는 아직도 우리를 데카르트적 지성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_p.192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한국교회탐구센터 엮음 /
IVP

며칠 전에 영화 「기억 전달자」를 보았다. 영화가 흑백으로 시작해 화면에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획일화된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곳의 구성원들은 인류가 경험한 전쟁, 자연재해, 가난, 가족, 사랑과 같은 기억이 없다. 왜 사회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제했을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는 세상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을까. 그 사회는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통제한다. 누군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면 그는 정확한 표현을 쓰라는 강요를 받고, 거주지를 나설 때는 모두가 감정 억제 약물을 맞아야 한다. 약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시대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예사일이 되었다.

도덕성 알약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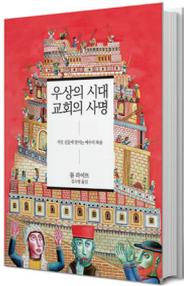
‘도덕성 알약 프로젝트(morality pills project)’라고? 마치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만 같은 이 말은 역면 그대로 일부 신경과학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약물로 도덕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리탈린은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어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약물로 도덕성과 인지 기능을 통제해도 되는가? 최근의 신경과학은 의지에 앞선 뇌의 작용이 인간의 행위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기도 한다. 믿음도 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뇌과학의 주장에 기독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이런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지만 과학과 신앙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해 준다.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책의 <특별좌담>에서 첫 질문은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였고 좌담에 참여한 패널 세 분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다. 만약 내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책을 통해서라고 말 하겠다. 무크지인 이 책은 연관 공부의 동기를 한껏 부여해 준다. 과학과 신앙을 주제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은 이 책을 읽어라!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특별좌담>을 보고 패널들의 기사와 주장이 담긴 글을 찾아보았고, <특집>의 논문 세 편을 토대로 신경과학과 현재 내가 하는 윤리학 공부를 연결해 신경 윤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북리뷰>를 읽고는 신경과학에 관한 꼬리에 꼬리를 문 책 읽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 책의 어느 한 지점과 만나 ‘과학과 신앙’ 공부의 물꼬를 틀 것이다.

책 속의 한 줄

뇌과학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관심을 돌리기를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물질 속에서 정신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물질적 존재이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과학이나 철학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뇌과학과 신앙의 지평을 양방향으로 확장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소명으로 다가옴을 느낀다. _p.186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
툼 라이트 /
김소영 옮김 / IVP

친구에게

정말 오랜만일세. 친구에게 편지를 쓰지가 말이야.

방금 '거짓 신들에 맞서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부제의 책을 읽었어.

오랜 만에 참신하고 힘겨운 생각에 빠져드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믿음의 번민, 희의를 나누던 때가 떠오르며 친구가 그리워지네.

저자인 톰 라이트는 한쪽 주머니에 우수한 전문 자질, 또 다른 한쪽에 주일학교 신앙을 가지고 일하러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일갈하며, 복음과 사회적 행동이 아우르지 않으면 '가짜'라고 혹독하게 말하네. 지난 시간, 이런 저런 사회적 참여의 욕구를 믿음의 양심과 행동이라는 갈등으로 구분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무안

해졌어. 아마도 그 때는 과격한 행동이 교회와 복음에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지지해주었다는 생각이긴 해.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하긴 사회 참여라는 구분조차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네. 교회의 모습이 염려스럽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사회와 산업의 맥락으로 보자면 보잘 것 없는 변화이지 않겠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잖은가. 그동안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고, 가족, 사회 구성원, 직업, 산업, 주거형태, 교통수단 등 우리가 겪은 변화는 아찔하지 않나. 친구가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자네 얼굴도 목소리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으니 기술의 발달이 고맙긴 해.

그런데 말일세, 오늘은 이런 모든 변화와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네. 우리가 이렇게 경이로운 삶을 살다보면 믿음을 위해 목상하는 것은 어떤 양태가 될지 급작스레 걱정이 되네. 일상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컴퓨터에 쌓이는 빅 데이터가 곧 삶의 예상치를 제공한다고 말일세. 친구야, 생각해 봐. 우리 애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빅 데이터의 정확도가 겨루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네. 친구야, 지난 시간 우리가 삶을 나누며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며 시간을 함께 하던 때가 그리워.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함께 복음을 새기고 느끼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자. 이제 보니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진짜 걱정 아니겠나?

아무리 세상은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좋으며 날마다 더 짜릿한 감각으로 우리를 뒤흔들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하무적 아니겠나? 괜한 사족 길어서 미안하이.

늘 건강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온전히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자구.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네. 자네도 이 책 한 번 읽어보게나. 내 이야기 들어주어 고마우이.

친구와 나누고 싶은 말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 그분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짙은 안개와 회오리바람을 뚫고 산길을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방향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나침반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목상하면 견고해질 것이다. _p.312



사랑학교
게리 토마스 /
윤종석 옮김 / CUP

이성교제를 시작하며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여자친구만 생기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고민으로 지새운 날들이 적지 않다. “사랑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학교』를 읽으며 내 모습을 반성해보기도 했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나름의 정의를 내려 보기도 했다.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바른 실천은 잘 안되지만, 그럼에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사랑을 배우는 인생학교

결혼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다. 다만 인간의 죄와 이기성은 복된 연합을 마라의 쓴 물로 바꾸어 버린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결혼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지 어렵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인가?”로 말이다. 참된 사랑은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며, 나의 유익보다는 배우자의 축복을 우선순위에 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친밀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 결혼의 목적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게리 토마스는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외모, 경제력, 학벌)의 힘 앞에서 영적 사명은 뒤로 밀려나기 쉽다. 결혼에 대한 바른 렌즈를 갖는 데 『사랑학교』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둘째, 가정생활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랑학교』는 부부의 연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정한 개선을 원하는 부부에게 『사랑학교』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사이의 관계 역시 위태로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부부사이의 관계도 가까워진다는 것이 결혼의 신비이다.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도록 하는 넓은 안목을 『사랑학교』는 제공하고 있다.

책 속의 한 줄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 땅의 많은 친구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서지는 광선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태양이다. 그들은 실개천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수원이다. 그들은 물 한 방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다이다. - 조나단 에드워드 - p.58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7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00.000	인건비	일반급여	7,989.400
	임원회비	48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6,460.500		소계	7,989.400
	기관후원금	4,8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666.500		사무실관리비	461.200
	CTC후원금	80.000		통신비	330.600
	학술지원금	1,000.000		소모품비	179.100
	VIEW후원금	100.000		식비	390.690
				복리후생비	654.780
				퇴직연금	363.262
		회의비		1,529.750	
		우편료		300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277.941		
		소계	5,012.623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89.450	
			VIEW후원금	500.000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589.45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발송비	747.610	
		소계	3,247.610		
기타수입	CUP매각금(분납)	400.000	기타	세금	27.000
	예수금	587.620		기타	0
	소계	987.620		소계	27.0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1,260.0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850.000
	세계관기타수입	510.000		세계관행사준비	4,940.543
	소계	1,770.000		소계	5,790.543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3,190.000
	학술지심사비	350.000		학술지심사료	1,680.000
	학술지저작권료	1,054.221		학술지발송비	766.800
	학회기타수입	0		학회기타	150.000
	소계	1,504.221		소계	5,786.800
당월 수입액		18,798,841	당월 지출액		29,443,426
전월 이월액		71,832,849	차월 이월액		61,188,264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7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55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122,000
				인쇄비	2,542,925
				소계	4,124,925
		경상비	복리후생비	61,820	
			회계용역비	110,000	
			회의비	68,400	
		소계	240,22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세금	27,000
	도서판매비	263,550		기타	4,400
	예수금	15,180			
	소계	2,778,730		소계	31,400
당월 수입액		3,328,730	당월 지출액		4,396,545
전월 이월액		29,820,314	차월 이월액		28,752,499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No. (2017년 1월 31일 마감)
Date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휘, 김봉현, 김셋별, 김셋별, 김성욱, 김명주, 김정원, 김창수,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석현, 박원근, 박해일, 생명의강, 손영일, 송지수, 영음사, 옥광천, 유성욱, 윤 정, 이승찬, 이철민, 장재수, 전은경, 정세열,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윤희,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황기희 **5천** 강대용, 구성덕, 구재환, 권영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성규,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실, 김제우, 김태명,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교, 박승룡, 박진규, 박현민,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송동민, 송시석,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인화, 이수인, 이영홍, 이인수, 이종혁, 이항수, 이호진, 임소연,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충국, 정봉현, 조은아, 조민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희정, 한동현,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조은주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나실, 김동현, 김성욱, 김재우, 방성기, 이경우, 이남철, 이은순,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1만** David Han, 가월원, 강민창,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웅재, 고재호, 공승건,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선영,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계연, 김교운,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기현, 김기홍, 김남진, 김동찬,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철, 김보경, 김봉례,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현, 김세중, 김소라, 김승준,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석, 김윤성,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민, 김재정, 김모모, 김준준, 김정진, 김정호, 김중희, 김좌남,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근, 김지민, 김진규,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진, 김판익, 김 혁, 김현정, 김형길, 김형철, 김혜정, 김홍섭, 김홍제, 김효석, 김효숙, 김희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남선우, 노아름, 노영숙,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재환, 문진성, 민경후, 민신기,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승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호, 박선, 박선자,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용성, 박원근, 박유관, 박은주,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준진, 박지현, 박지현, 박진, 박진규, 박진희, 박현중,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인교, 배지연, 배효진,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소중화, 소진희, 손영규, 송창민, 손하은, 손한나, 손현탁,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선영,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신호영, 심명선, 심재훈, 안남주, 안동석, 안병열, 안석, 안영희, 안영환, 안웅준, 양성진,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성호, 오지순, 우중학,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상환, 유선덕,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의신, 유지환, 유창은, 유해우, 유현동, 유화원, 윤명심, 윤미자, 윤상현, 윤수자,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식, 이계실, 이권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훈, 이길구, 이길형, 이덕영, 이등훈, 이명동, 이명석,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급,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선, 이선복, 이선혜, 이성미, 이성수, 이상일, 이수연, 이순진, 이승영,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준섭,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경, 이철걸, 이혜리, 이행로, 이형진, 이호선, 이현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상필, 임소현, 임수복,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준섭, 임준택, 임현영,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승훈, 장은애(함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영수, 전준호, 전찬양, 정경식, 정동성, 정세준, 정승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재현,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희주, 정희원, 제양구,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선하, 조성호, 조승희, 조영우, 조용현, 조은상,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피터게츠, 조하람, 조현웅,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조혜신, 주경식, 진정용, 차봉준, 차유림, 최상열, 최성두, 최성호,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종빈, 최진우, 최현빈, 최현정, 최혜경,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재희, 하진호,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인관,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홍구화, 홍대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종민,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세환, 황익서, 황인경, 황혜숙, 황혜정 **1만1천** 장현정 **1만5천** LEESAMUELY,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강원석, 김광순, 김세광, 김인숙, 노용환, 박기모, 배성민, 석지원, 송찬호, 신태학, 오지희,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인아, 임지연, 조주영, 조창근 **2만8천** 성관수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재주, 문석윤, 문소성,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송태현, 오익석, 오한나, 우병훈, 이근호, 이수형, 이은실, 임희옥, 조주영, 최홍준, 추태화, 황정진 **4만** 이진희 **4만2천** 최성진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영욱, 김지연, 박문식, 서진희, 윤석찬, 장수영,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은식, 합부영, 현은자, 현하나 **6만** 손영욱, 손진영, 조무성 **8만** 권정아 **10만** 강영민, 김지현, 김용봉, 김태환, 류혜옥,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신국원, 신정윤, 윤완철, 전광식 **12만** 김경호 **20만** 채기현 **30만** 김승욱

계 8,687,0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가족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성교회, 제자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카이스트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심자교회

계 5,8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를 공모합니다!”

세계관연구소 시상금 100만원 논문제안서 응모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전문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연구소에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공동으로 기독교세계관 연구의 활성화와 신진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2017년도 발간 예정인 『신앙과 학문』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 학술적인 논문**

■ 공모 요강

- 제출기한: 2017. **5.30** (화) 까지 논문제안서 제출
- 제출자료: 1) 연구논문 제안서 (7매 내외, 참고문헌 별도) 2) 이력서 (자유형식이나 단, 이메일, 손전화 필수 기재)
- * 제출 시 메일 제목을 “[이름]논문제안서 공모” 로 기재
- 제출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 e-mail : gihakyun@daum.net
- 선정절차: 제안서 심사 후 선정 → 선정안내 및 논문작성 요청 → 논문심사 후 게재
- 선정편수: 5편 내외 (비전임 신진학자, 대학원생 우대함)
- 발표일자: 2017. **6.20** (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개별연락, 월드뷰 공시)
- * 추후 학술대회의 주제강연 이후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특전 및 의무

-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선정 시와 논문 게재 시 시상금 100만원/편 지급 (제안서 채택 시 50만원, 『신앙과 학문』 논문 게재 시 50만원 지급)
-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에 게재 여부 결정
- 선정된 논문의 『신앙과 학문』에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 (단, 23권 1호(18년 3월호) 발행분에 한함)
- 선정된 논문의 제안서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본회 연구재단 학술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투고 및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전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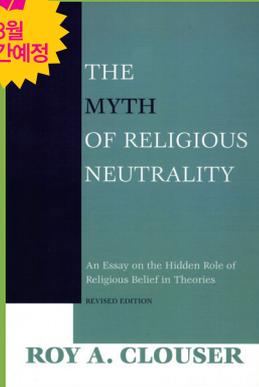
■ 문의: 세계관연구소 담당 (Tel: 02-3272-4967)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유재봉**
 세계관연구소 소장 **조성표**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회 위원장 **손병덕**



웨슬리 웨스트워스 북펀드 캠페인은 기독교학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웨슬리 웨스트워스 선교사님의 뜻이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웨슬리 선교사님의 추천과 후원에 힘입은 도서를 출간합니다. 그 첫번째 서적으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의 북펀딩을 시작합니다. 세계관동역회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3월
출간예정



WESLEY BOOKFUND NO.1

〈웨슬리 웨스트워스 북펀드 #1〉

첫번째 도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북펀딩을 시작합니다!

강영안 교수 강력 추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학문이론과 종교적 믿음의 상관관계

종교와 무관하다고 여겨진
이론들의 숨겨진 전제를 파헤치다!

로이 클라우저 지음 | 홍병룡 옮김 |
520쪽 | 35,000원(예정) | 아바서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철학의 이론들이 종교적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종교적 중립성을 하나의 신화로 규정하고 모든 이론의 바탕에는 모종의 종교적 믿음이 있음을 치밀하게 논증한다.”



∴ 웨슬리 북펀드에 참여하는 월드뷰 회원이 받는 리워드 ∴

- (1) A형 (3만원)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1권 (정가 35,000원 예정)
 - (2) B형 (6만원)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2권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미니)] 1권
- + 목표(100구좌) 달성 시 1구좌당 5천원을 <웨슬리 북펀드 #2> 제작비로 적립합니다.

∴ 참여방법 ∴

북펀딩 참여 의사를 메일로 전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면 출간 후 책을 보내드립니다.
*메일발송시 메일제목에 “웨슬리북펀드” 기재,
연락처(손전화), 주소를 꼭 적어 주세요.
*입금시 꼭 “입금자명(웨북)” 으로 입금해주세요.

이메일 info@worldview.or.kr (세계관동역회) | abbabooks@hanmail.net (아바서원)
문의 02-754-8004 (세계관동역회) | 02-388-7944 (아바서원)
계좌 신한 100-030-510094 (예금주:협동조합아바서원)

웨슬리 북펀딩 캠페인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책만드는 협동조합 아바서원과 함께 합니다.

WORLDVIEW NEWS

1. (발표논문모집) 2017년 춘계학술대회 “종교개혁적 전통의 교육 및 실천”

돌아오는 봄, 2017년 춘계학술대회가 안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종교개혁적 전통의 교육 및 실천
- 일시 : 2017.5.13.(토)
- 장소 : 안양대학교
- 논문발표 신청접수 마감 : 4/14(금) 저녁 7시
※ 대학생 논문발표는 오전에 진행되며, 발표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 문의 02-3272-4967, 고한빛 간사

2. (세계관연구소 논문제안서 공모전) 학술지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 공모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전문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관연구소에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공동으로 기독교세계관 연구의 활성화와 신진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2017년도 발간 예정인 『신앙과 학문』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세계관연구소 시상금 100만원 논문제안서 응모 안내)

- 공모 요강
- 제출기한 : 2017. 5. 30(화)까지
- 제출자료 : 1) 연구논문 제안서 2) 이력서
- 제출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
e-mail : gihakyun@daum.net
- 선정절차 : 제안서 심사 후 선정 → 선정안내 및 논문작성 요청 → 논문심사 후 게재
- 발표일자 : 2017.6.20(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개별연락, 월드뷰 공식)
- * 추후 학술대회의 주제강연 이후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특전 및 의무
- 선정된 제안서는 선정시(50만원)와 논문 게재시(50만원) 총 시상금 100만원/편 지급
- 선정된 논문은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에 게재여부 결정 (심사로, 게재료 면제, 단, 23권 1호(18년 3월호)까지 발행분에 한함).
- 선정된 논문은 본회 연구재단 학술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투고 및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전제로 함.
- 문의 : 02-3272-4967, 신호영 사무국장

3. (웨슬리 웨스트워스 북펀딩) 웨슬리 웨스트워스 북펀딩#1

기독교학문의 발전을 위해 웨슬리 웨스트워스 선교사님의 추천과 후원으로 출간되는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예상정가 35,000원)를 세계관동역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북펀딩을 진행합니다.

- 대상서적 :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원서명 :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저자 : Roy A. Clouser)
- 북펀딩에 참여하는 회원이 받는 리워드
- A형(3만원) 참여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1권
- B형(6만원) 참여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2권과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1권
- 북펀딩 목표(100구좌) 달성 시 1구좌당 5천원을 웨슬리 북펀딩 2단 제작비로 적립됩니다.
- 문의 02-754-8004

4.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입학설명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입학설명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7. 03. 10(금) 저녁 7:30
-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지하2층(합정역 7번 출구 뒤로 돌아 직진, 서울 마포구 독막로 20 (지번) 합정동 364-70/ 본관과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 문의 : 02) 754-8004, 신호영 사무국장

문의 02-754-8004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 *

3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3/10(금) VIEW 설명회
- 3/11(토) 월드뷰 북에세이팀 모임
- 3/25(토)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먼 공동발행
- 3/27(월) 월드뷰 3월호 발행
- 3/31(금) 학술지(신앙과 학문) 22권 1호 발행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종교개혁적 전통의 교육 및 실천

기조강연

종교개혁과 문화 추태화 (안양대 교수)
종교개혁과 교육 조성국 (고신대 교수) 2017. 5.13. (토)
종교개혁과 삶의 실천 김재윤 (아신대 교수) 안양대학교

- * 논문발표 신청 마감 : 4.14(금) 저녁 7시 / www.worldview.or.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안내 메일 확인)
- * 완성본 제출 : 4.28(금) 저녁 7시 / gihakyun@daum.net (학회 메일)을 통해 직접 제출
- * 대상 분야 : 기독교세계관, 경영/경제, 교육, 과학, 문학/철학, 문화예술, 사회복지/상담, 인문학, 의학 등
- * 꼭 기일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 약속을 지키는 학술대회 문화의 정착과 복합학문 성격을 띤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에 제한이 있습니다.
- * 학회 주제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 우선권을 갖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